

[해설] 삼성 vs LG 무한경쟁이 낳은 TV의 진화 03



Econo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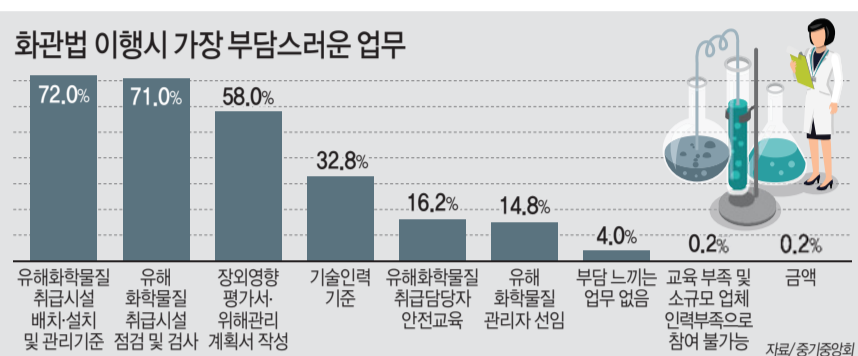
코스피	2091.92 (+3.96)	코스닥	634.50 (+1.51)
금리 (미국 3년)	1.43 (+0.04)	환율 (원/달러)	1183.10 (+1.90) (2일)

‘중소 발목’ 화관法-화평法 손본다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평가법)

당·정·청, 내년 1월시행 앞두고 대책 조율... 이달중 발표

중소 경영타격 우려에 개선 목소리 조영래장관-중기중앙회 간담회 여론수렴 뒤 최종대책 조율할 듯



당·정·청이 화관법, 화평법 대책을 이달 중 내놓는다.

대책에는 ▲기존 취급시설에 대한 유예 일정기간 추가 연장 ▲소기업에 대한 화학물질 등록 비용 정부지원 확대 ▲법 시행 후 일정 계도기간 부여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상향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은 더욱 강화된 내용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준비와 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계에선 그동안 상당한 애로를 호소하며 제도 개선 목소리를 높여왔다. 일부에선 관련법을 산업 현장에 맞게 재개정하거나 아예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 보호’ 명분으로 강화해 시행이 임박한 법 때문에 기업들의 비용이 크

게 느는 등 현실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화관법·화평법 주무부처 수장인 조영래 환경부 장관은 빠르면 이달 중순께 중소기업계 대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를 갖고 관련 여론을 수렴한 뒤 최종 대책을 가다듬을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산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환경부, 청와대는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강화된 화관법·화평법에 대해 산업계 여파를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 이달 중 내놓기 위해 현재 최종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 당·정·청이 함께 마련한 소재·부품·장비 종합대책을 놓고도 화관법·화평법에 대한 개정없이 나온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당·정·청 사정에 밝은 정부의 한 핵심 관계자는 “화평법·화관법을 놓고 그동안 중소기업계를 비롯해 산업현장에서 현실에 맞게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건의가 많았다”면서 “대책 내용은 상당부분이 조율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화관법·화평법 관련 중소기업계 입장을 정부와 정치

권에 건의한 바 있다.

화관법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소량 기준 관련 ‘일일취급량’ 정의 개선 ▲취급시설 변경허가·신고시 ‘가동개시 신고’ 도입 ▲취급시설 기준에 대한 유예기간 2년 연장 ▲기술인력 인정기준 확대 및 한시적 인정기간(2023년) 삭제 등이 건의내용에 두루 담겼다.

화평법은 ▲정부 시험자료 생산 매년 100→2500개로 확대 ▲유럽연합(EU) 등 해외 시험기관과의 소통 채널 구축 ▲제조 소기업 대상 화학물질 등록 전비용 지원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0.1톤 이상→1톤 이상) 상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9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도 화관법 관련 중소기업 취급시설 개선자금 지원 확대, 화학물질 등록 부담 완화 및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건의하기도 했다.

실제 내년부터 화관법·화평법이 현행대로 시행될 경우 도금(표면처리)이나 염료, 안료 등 화학물질을 많이 써야 하는 중소기업들은 비용 등 부담이 크게 늘어 경영에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것을 걱정하고 있다. (2면에 계속)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마비 우려” 文, 한국당 비판

수석보좌관 회의 주제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으로 인해 제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상태에 놓인 점을 강하게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20대 정기국회가 마비상태에 놓여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들을 하나하나가 국민들에게 소중한 법안들이다. 하루속히 처리하여 국민이 걱정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로 돌아와 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지난달 말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국회 본회의를 무산시킨 한국당을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쟁점 없는 법안들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문화는 이제 제발 그만 두었으면 한다”며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이 오히려 후진적인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국민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하여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며 “아이 부모들의 절절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을 넘기게 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은 국회의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이기도 하다”며 “그러나 이번에도 기한을 넘기게 됐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을 반복하는 셈”이라고 했다.

(3면에 계속)

/우승준 기자 dn1114@

당신의 ‘항공 마일리지’는 안녕하십니까... 대량소멸 눈앞

대한항공·아시아나 10년주기 소멸 2009년 적립 마일리지 1월 증발
공정위가 꺼낸 ‘복합결제’ 방안 시범사업도 못하고 제자리 걸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여객기가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활주로를 이동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대량의 항공 마일리지 소멸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소비자를 위한 복합결제안의 추진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 마일리지 10년을 주기로 소멸되기 시작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미 극히 제한적인 사용처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았던데다, 없었던 소멸시효까지 생기면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과도한 행위라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반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먼저 꺼내들었던 ‘복합결제안’의 마련은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인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제기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08년 마일리지 회원 약관 개정을 통해 항공 마일리지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제한했다. 이로 인해 올해 1월 1일 대한항공은 2008년 7월부터 12월,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적립했으나 미사용한 마일리지 소멸됐다. 또한 내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양사 모두 2009년

한해에 적립된 마일리지 사라지게 된다. 적립 기간이 반년 가량에 불과했던 올해와 달리, 내년에는 1년치의 마일리지 소멸 대상에 해당돼 규모가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한 달도 채 안 남은 시점이지만 전체 소멸 마일리지 얼마나 되는지 규모 파악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항공 마일리지는 항공사 내부의 정보로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알리지 않고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내년 항공 마일리지 얼마나 소멸되는지는 내부적인 자료라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항공 마일리지는 재무제표에 부채로 기록되는데, 지난 9월 기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에 따른 부채는 각각 2조3111억원, 7238억원이다.

항공 마일리지의 소멸시효가 논란

이 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복합결제’를 해결책으로 꺼내들었다. 항공권 구매 시 오직 마일리지로만 전체 금액을 지불해야만 하는 지금과 달리, 현금과 마일리지를 섞어서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활용도를 높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난 지금도 ‘복합결제안’은 아직 시범사업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복합결제안은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다. 구체적인 내용·시기 등은 아직 확정된 게 없다”며 “다만 제도를 바로 시행하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 시범 사업을 먼저 하다가 문제점이나 개선점이 있으면 보완할 것이다. 일단 시범 사업이란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자사의 매각을 이유로 아직 복합결제안을 검토 중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복합결

제안의 진행은 전적으로 사업자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올해 1월 소멸된 항공 마일리지를 반환해달라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소송 진행 중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양사에 제출해 관련 사실 정보를 공개하라는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제기한 상태이며 이달 20일 2차 공판이 진행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관계자는 “이번에 마일리지 얼마나 소멸되는지 우리도 알 수 없으나 엄청난 양이 소멸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그 규모가 재판 과정에서 사실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며 “소비자들은 마일리지에 대한 소비자의 재산권 부문에 있어 권리에 제한을 두지 말라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중공업·車 등 제조업 강성노조시대… 내년 노사 ‘가시밭길’

현대重 지부장에 강성성향 조정근씨 공약으로 ‘정년연장 준비’ 등 제시 임단협서 노조입장 굽히지 않을 듯

기아차·현대차·한국지엠, 선거앞뒤 모두 강경파 새 지부장 선출 전망 내년 노조갈등, 올 보다 심화 예고

국내 제조업계가 내년에도 노사 갈등으로 혼란을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현대중공업의 새로운 지부장이 강성 성향의 조정근 씨가 선출된 데 이어 자동차 업계도 강성 성향의 새 노조 집행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27일 급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3기(23대) 임원 선거 결과, 조정근 지부장이 최종 당선됐다. 조 지부장은 현 박근태 지부장과 같은 분과동지연대회 소속으로 소위 ‘강성’ 성향으로 향후 임단협에서 사측과의 현재 대립각이 이어질 전망이다. 조 지부장 당선자는 현재 현대중공업지부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조 지부장은 선거기간 ‘민주노조 계승’을 구호로 조합원의 임금과 보편적 복지 확대, 통상임금 빠른 승소를 위한 활동 강화, 정년연장 제도적 준비, 현대중공업그룹 공동교섭 추진 등의 공약을



조정근 현대중공업 노조지부장 당선자.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제시했다. 현재 사측과 진행 중인 임단협에서 노조 측 입장을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매년 임금협상을 둘러싸고 노사간 갈등이 증폭되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은 자동차 업계도 상황은 비슷하다.

기아차에 이어 현대차와 한국지엠 노조도 3일 새 집행부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모두 강경파가 새 지부장으로 선출될 전망이다. 일자리 전환과 신차 물량배정 등 업체마다 노사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자칫 강성 노조가 들어설 경우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심한 갈등에 예상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경기 침체로 판매량 감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의 위기는 더욱 확산될 가능성도 높다.

3일에는 향후 2년간 현대차노조들이 끝 지부장선거에 실리중도와 강성 성향 후보 2명이 선거에 돌입한다.

‘실리중도’ 성향인 이상수 후보는 현장조직 ‘현장노동자’ 소속으로 3대 노조 수석 부지부장을 지냈다. 그는 호봉승급분 재조정으로 고정임금 강화, 실질적 정년연장, 4차 산업 대비 고용안정 확보, 여성조합원 처우 개선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강성 성향인 문용문 후보는 ‘민주현장투쟁위원회’ 소속으로 4대 현대차 노조지부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상여금 150% 통상임금 포함, 4차 산업 정책연구조 설립, ‘7+7 노동시간’ 도입, 총고용 보장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지난달 진행된 1차 투표에서 이 후보

가 1위를 차지했지만 2위 문 후보와 3, 4위 후보가 모두 강성 후보였다는 점에서 결선투표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선불리 판단하기 이른상황이다.

올해 노사 갈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낸 한국지엠도 1차 투표결과 강성 성향 두 명이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김성갑 후보와 안규백 후보 모두 강성 성향으로 새 집행부가 결정되면 창원공장 비정규직 해고 문제와 10월 중단된 임협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성 노조가 들어설 경우 부분·전면 파업을 계속하며 사측을 압박했던 상황이 되풀이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기아차는 지난달 30일 강성 노조 출범과 동시에 사측과의 의견 충돌이

발생했다. 기아차 노조는 집행부를 꾸리지마자 조속한 임협 재개와 조합원 징계에 대한 사측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만약 새 노조가 파업 카드를 꺼내들 경우 신형 인기 차종의 생산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세기 동안 무노조 경영이 유지됐던 삼성전자도 한국노총 소속 노동조합이 설립되면서 내년부터 가시밭길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 노조 초대 위원장을 맡은 진윤석 위원장은 ▲특권 없는 노조 ▲상시로 감시받고 쉽게 집행부가 교체되는 노조 ▲일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노조 ▲제대로 일하는 노조 ▲상생과 투쟁을 양손에 쥐는 노조 ▲협력사와 함께하는 노조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앞으로 투쟁 과제로 ▲급여 및 성과급 산정 근거·기준 명확화 ▲고과와 승진의 무기화 방지 ▲퇴사 권고(상시적 구조조정) 방지 ▲일방적 강요 문화 철폐 등을 꼽았다.

업계 관계자는 “노조가 회사의 불법과 경영 부조리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며 회사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앞장서는 건 맞다”면서도 “다만 노조 집행부가 회사와 대립각을 세우고 대화보다 파업을 통해 뭔가를 얻고자 한다면 회사와 노조 모두 공멸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떨어진 나뭇잎 성큼 다가온 겨울 추위와 함께 강풍이 분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도로에 나뭇잎이 떨어져 있다. /연합뉴스

지정감사인 과도한 회계보수 등 실태점검

금융위·금감원·공인회계사회 공동 시간당 보수, 감사시간 등 집중점검

금융당국이 지정감사인에 대해 과도한 보수 등 감사계약 실태를 점검한다.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가 확대된 가운데 지정감사인이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할 경우 지정취소는 물론 감사품질감리를 실시하는 등 징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일부터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동으로 지정감사인에 대해 감사계약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시간당 보수나 감사시간 등 감사계약 진행과정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12일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

통지를 실시했다. 지정 통지를 받은 회사는 원칙적으로 2주 이내에 지정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예년에 비해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가 늘어났고, 표준감사시간 시행 등으로 감사계약체결 과정에서 회사·지정감사인간 보수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실태점검에 나섰다.

지정감사인이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면 회사는 공인회계사회 또는 금감원에 신고하면 된다.

공인회계사회는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와 관련 심의를 거쳐 지정감사인을 징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우선 회사와 지정감사인간 자율조정을 유도하고, 자율조정 의사가 없거나 어려운 경우 공인회계사회에 즉시 이첩한다.

지정감사인이 공인회계사회로부터 징계를 받을 경우 회사는 새로운 감사

인으로 지정감사인이 재지정된다.

외부감사인은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이 취소되고, 향후 지정 대상 회사 수 감축과 함께 감사품질감리를 받게 된다.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통해 ‘감사인 지정제외 1년 조치’ 추가도 가능하다.

감독당국은 감사 등 업무일정에 지정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감사계약 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과도한 감사보수를 이유로 공인회계사회나 금감원에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가 끝날 때까지 감사계약 체결기한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회사나 지정감사인이 감사체결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주의 추가기간도 부여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규제강화’ 기업유출 요인 추가제공

» 1면 ‘중소발목 화관法…’서 계속

특히 일본, 중국 등의 반격에 경쟁력을 키우기는 커녕, 규제 강화로 오히려 국내를 등지고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요인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엄습하고 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7월 화관법 적용 대상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들은 ‘법 이행시 가장 부담스러운 업무’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 및 검사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 ▲기술인력 기준 등을 주로 꼽았다. /김승호 기자 bada@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법 시행전에 취급시설 기준을 지키고, 설치검사를 통과하기 위해선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해야하지만 영세 중소기업들은 자금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특히 중소기업들이 통풍·냉방장치, 계측설비 등 법에 규정된 설비를 모두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화관법이 다음달부터 그대로 시행되면 적지 않은 기업들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나올 당·정·청의 관련 대책과 별도로 원천기술을 위한 연구개발(R&D) 시화평법·화관법 적용을 완화하는 법안을 최근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나유리 기자 yu115@

“내년 ‘퀀텀점프’ 통해 한단계 더 도약”

Sh수협은행 출범 3주년 기념식 이동빈 회장, 지속성장 거듭 강조

“고객 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고객의 이익과 성공을 뒷받침하는 영업문화를 조성하고 디지털금융을 선도하는 은행으로 변화해야 한다.”

이동빈 Sh수협은행장은 2일 서울 송파구 수협은행 본사에서 열린 ‘Sh수협은행 출범 3주년 기념식’에서 지속 성장을 거듭하자며 이 같이 강조했다. 수협은행은 지난 2016년 수협중앙회

로부터 분리, 다음해 우리은행 출신의 이동빈 수협은행장이 취임하면서 리테일금융과 고객기반 확대를 통해 균형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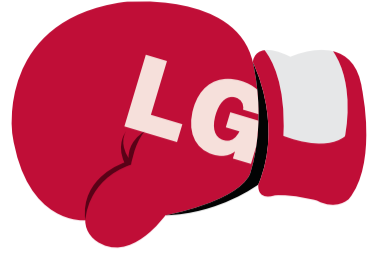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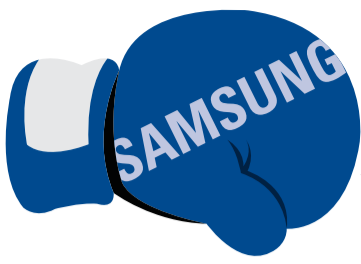
이날 수협은행은 출범 3년 만에 총자산과 당기순이익이 각각 13조7000억원, 1760억원씩 증가했다고 밝혔다. 총고객 수 역시 2016년 말 198만명에서 지난 10월말 기준 300만명 수준으로 확대됐다.

수협은행은 핀테크 기업들과의 제휴를 통해 디지털뱅크 전환 역시 추진했

고 미안마에 소액대출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성과도 거뒀다고 덧붙였다.

이 행장은 “아직 환골탈태(換骨奪胎)라고 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만큼 내년에 ‘퀀텀점프’를 통해 한단계 더 도약하고 지속 성장을 거듭해 나아가자”고 말했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수산업의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수협이 하루빨리 본질적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수협은행이 공적자금 상환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수산전문 금융서비스 기관으로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115@



싸우면서 세졌다... 무한경쟁이 낳은 기술의 진화

삼성 vs LG TV전쟁 승자는 '삼성·LG'

삼성전자와 LG전자간 TV 전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 삼성전자가 일 단은 판매량으로 우위를 차지했지만, LG전자가 얻은 마케팅 효과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프리미엄 TV 시장이 확대되면서 삼성전자와 LG 전자 모두 승자라는 해석도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 미국 법인인 최근 베트남에 이어 미국에서도 삼성전자 QLED TV를 저격하는 광고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올레드의 빛을 바라-LG 올레드 V S QLED & LCD(See The Light of OLED - LG OLED TVs vs QLED & LCD)'라는 제목이다.

LG전자는 영상에 올레드 TV 우수성을 설명하고, QLED TV가 LCD에 불과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자

발광 소재를 사용한 올레드 TV와 LCD 패널에 퀀텀닷 소자를 추가한 QLED TV와의 차이를 강조했다.

앞서 LG전자는 국내에서도 비슷한 광고를 송출한 바 있다. 직접 QLED TV를 분해해 올레드 TV와 다른 점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공정위에는 QLED TV를 '허위 및 과장광고'라고 신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소비자 선택은 오히려 QLED TV에 집중됐다. IHS마킷에 따르면 3분기 글로벌 시장에서 QLED TV 판매 대수는 전년(52만대)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116만대에 달했다. 올레드TV 판매량은 같은 기간 33만대로 오히려 전년대비 축소됐다.

삼성전자 QLED TV가 판정승을 거둔 셈이다. 올레드 TV가 여전히

잇따른 소송전·광고 디스전 소비자에 기술·상품성 각인

판매량으로는 삼성QLED '승' LG전자는 마케팅 효과 '톡톡'

가격이 높은데다가, 성능면에서도 장점을 크게 어필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 가전 유통 업계 현장 관계자는 "올레드 TV와 QLED TV 기술을 구분하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어났다"면서도 "올레드 TV가 가격 경쟁력으로는 뒤쳐진다는 점 때문에 오히려 QLED TV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올레드 TV 시장에서도 LG전자 비중은 줄었다. 3분기 올레드 TV 판매량 67만대 중 LG전자 점유율은 48.9%로 처음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소니와 파나소닉 등이 올레드 TV 경쟁을 가속화하면서 뒤처지게 됐다.

그럼에도 LG전자가 패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올레드 TV 시장 자체는 3분기 67만대 판매량으로 전년보다 소폭 늘면서 성장세를 이어갔다. 55인치 제품을 제외하면 아직 올레드 TV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시장에서 꾸준한 성장을 지켜가고 있다는 얘기다.

LG디스플레이가 올레드 패널 공급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올레드 진영 확대는 의미가 크다. 최근에는 삼성디스플레이가 'QD 디스플레이'

레이'에 투자를 선언하면서 올레드 수요도 크게 늘었다는 전언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TV 대전'으로 '윈-윈'에 성공했다는 평가도 여기에서 나온다. 삼성전자는 QLED TV의 상품성을, LG전자는 올레드 TV의 기술력을 더 알릴 수 있었고, 기술력 차이도 더 강조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일단 판매량에서는 우위를 가져갔지만, 내년에는 LG 올레드 TV가 가격을 낮추면서 시장 비중을 확대할 수 있다"며 "삼성전자도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에 나서면서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력도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삼성전자와 LG전자가 TV 시장을 두고 전세계 소비자들을 사로잡기 위해 기술·마케팅경쟁을 치열하게 벌였다. (왼쪽부터)삼성전자 QLED TV, LG전자의 올레드 TV.

/각사

과학고 졸업생 '의대 진학' 막는다

서울시교육청-서울과학고 협의 "설립목적과 달라" 문제 지적에 교육비 환수, 시상 취소 등 조치

서울과학고등학교(교장 임규형)가 내년 신입생부터 졸업 후 의대에 지원할 경우 그동안 지원한 교육비를 모두 환수하고 교내 대회 수상 실적을 취소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과학고와 협의해 신입생 선발제도 개선 방안과 과학영재 학생의 이공계 진학지도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서울과학고가 과학영재 학교 신입생 상당수가 설립 목적과 달리 의학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문제가 지적됨에 따른 것이다.

서울과학고 2019년 졸업생 130명 중 75명(77%)는 이공계열로 진학했지만 30명(23%)은 의학계열로 진학하는 등 매년 졸업생의 20% 내외가 의학계열로 진학하고 있다.

특히 이공계 진학지도 강화와 의학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 교육청.

/뉴스1

열 진학 억제에 위해 진로상담을 강화하고 의학계열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일반고 전학을 권고하기로 했다.

또 내년 신입생부터 의학계열 대학에 지원할 경우 일반고에 비해 더 많이 지원되는 교육비를 환수하고 교내 대회 시상 실적도 모두 취소하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도 환수한다. 의학계 지원시 추천서도 받을 수 없다. 서울과학고 교육비는 1인당 연간 500만원으로 3년간 1500만원 내외다.

아울러 신입생의 지역편중 현상과 입

시 사교육 과열 해소를 위해 16개 시도와 서울 25개 자치구 등 41개 단위지역별 1명 이내로 우선 선발하는 '지역 인재 우선선발 제도'를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2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선행 학습 효과를 배제하고 입시 사교육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열린 문항 출제를 확대하는 등 신입생 선발 평가 내용과 방법을 지속 개선기로 했다. 올해부터 당해연도 평가 문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한용수 기자 hys@

文 “예산안·민생법안 신속 처리” 당부

>> 1면 '文, 한국당 비판'서 계속

문 대통령은 “국가예산은 우리경제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처리가 늦어지면 적시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렵다. 특히 대내외적 도전을 이겨나가는 데 힘을 보태며 최근 살아나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경제심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기 회복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예산안 처리에 국회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말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며 “지난 30년간의 한-아세안 대화에서 최초로 한반도 문제를 특별히 논의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가진 것도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들은 한결 같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 노력과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 구상을 지지했다”며 “아세안의 지지는 앞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든든한



정의용(왼쪽부터) 국가안보실장과 김유근 1차장, 김현중 2차장이 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나란히 앉아 있다.

/뉴스1

힘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 소속으로 알려진 청와대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다만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같은날 오전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민정비서관실 업무와 관련된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깊이 숙고하고 있다”고 애도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가운데)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오른쪽)가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타다’ 1차 공판 “적법 렌터카” vs “불법 콜택시”

‘타다’ 불법성 여부 두고 의견 대립
이재웅 대표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승합차 공유서비스 ‘타다’의 불법성 여부를 가리는 첫 재판에서 검찰과 타다 측 변호인이 공방을 펼쳤다. 검찰은 “타다는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며 불법성을 주장했고, 타다 측은 “기사를 포함한 렌터카 사업은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맞붙였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바이씨엔씨(VCNC) 대표 등 타다 운영자들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타다는 렌터카의 운전자 앞 선 예외조항인 여객자동차법 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주력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 운송 영업을 해왔다.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사람에 한해 운전자를 앞선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은 타다가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불법 영업을 해왔다고 판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10월 28일 이재웅 쏘카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타다 영업은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은 결국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는 것”이라며 “타다 이용자 역시 자신을 택시 승객으로 인식할 뿐이지 임차인으로 인식하지 않고 차량 운영에 대한 실제 지배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 등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타다를 불법이라고 판단한 적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국토부가 타다와 유사한 우버 등에 대해 불법 유상 운송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공표를 한 바 있다”며 “위법성 인식을 부정할 사유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타다 등이) 새로운 유형의 사업이라고 해도 운영 형태가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육성돼야 한다”며 “민약 법률 규정에서 저촉하거나 법률로써 보호돼야 하는 다른 제반 이해와 충돌한다면 현행법 규정하에 사법 판단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타다의 구체적인 영업방식, 타다 이용자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지위 등을 근거로 타다 영업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라는 점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 대표 등은 타다 서비스는 법적 근거를 둔 렌터카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사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 대표 등의 변호인은 “이미 타다 전에 기사를 포함한 렌터카 사업이 허용되고 있었고, 이것은 자동차여객운수사업법 상에 근거를 둔 적법한 구조”라며 “타다는 (이용자가) 쏘카를 빌려 기사가 앞선다면, 기사가 차를 운전해서 이용자에게 가는 것이다. 종전 방식(기사 포함 렌터카사업)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택시와 동일하니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죄형법정주의’를 언급하며 반박했다. 어떤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법률로 규정돼 있어야 하는데, 사실상 택시와 동일하다고 해서 법률상 렌터카를 콜택시로 규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변호인은 “타다에서는 자동차 임대계약, 용역계약, 용역알선 계약, 중계계약이 있고, 이용자는 약관을 보고 승인한다”며 “이 전체를 뭉뚱그려서 타다 서비스가 택시와 비슷하다고 하는데, 기록을 검토해보니 약관과 계약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이행되지 않은 요소는 단 하나도 없었다”고 부연했다.

/손현경 기자 son89@



300조 퇴직연금 무한경쟁 증권사, 수수료 ↓ 수익률 ↑

신한금융, 업계 최저 0.43% 수준
실질적 수익률 제고, 고객관리

증권업계가 퇴직연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쟁에 돌입했다. 운용 수수료를 잇달아 인하하며 고객 유치에 나선 것. 수익률이 마이너스일 경우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는 공격적인 선언까지 나왔다. 퇴직연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선제적인 마케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자는 다음주 중 현재 0.43% 수준인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수수료를 추가로 낮출 계획이다. 인하 수준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업계 최저 수수료를 선언한 NH투자증권(0.40%)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이미 사회공헌기업 수수료 50% 할인,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경우 운용 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업계 최고수준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고객 퇴직연금 자산 관리에 더욱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증권업계 수수료 ‘최저’ 전쟁

증권업계는 지난 6월부터 본격적인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에 나섰다. 퇴직연금 자산이 오는 2023년 300조원까지 커질 것이라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기금형퇴직연금 도입도 가시화되고 있어서다. 퇴직연금 시장을 선점하는 증권사가 미래 먹거리를 거머쥘 수 있다는

(증권사 퇴직연금 수수료)

/각 사, 금융투자협회

증권사	50억원 미만 DB형 수수료율	최근 3년 DB형 수익률
KB증권	0.42%	1.94%
신한금융투자	0.43%	1.88%
삼성증권	0.41%	1.84%
미래에셋대우	0.45%	1.83%
한국투자증권	0.41%	1.78%
NH투자증권	0.40%	1.75%

것이다.

미래에셋대우는 DB형의 기본 수수료를 금액구간을 세분화하고 새로운 수수료율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최대 30% 인하효과가 발생했다. 또 퇴직연금 장기가입자를 위한 장기할인율도 최대 5%포인트 상향키로 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10월 DB형에서 모든 적립금 평가액별 구간수수료율에 대해 평균 0.04%포인트(0.01~0.09%) 인하를 결정했다. 삼성증권은 2017년부터 IRP 개인 납입금에 대해서는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증권업계 중 퇴직연금 자산(11조 8000억원)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현대차증권 역시 수수료 인하대열에 합류했다. 현대차증권은 지난 달 퇴직연금 수수료를 평균 0.1%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뒤이어 KB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적립금 50억 이하의 DB형의 경우 수수료율을 연 0.42%, 0.41%로 각각 0.08%포인트, 0.04%포인트씩 낮췄다.

NH투자증권은 ‘업계 최저수준 수수료’를 선언했다. 50억원 이하 DB형 퇴직연금 수수료율을 0.40%로 낮춘 것. 회사 측은 장기가입시(2년 이상) 적용되는

수수료 할인혜택의 비율도 업계 최고 수준으로 상향시키겠다고 전했다.

◆ 연금관리 서비스도 강화

증권업계는 연금 서비스 강화에도 나서고 있다. 단순 수수료율 인하를 벗어나 실질적인 수익률 제고와 고객 관리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삼성증권은 올해 7월 말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IRP, 개인연금 등 연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3분 연금계좌’ 시스템을 오픈했다. 이후 비대면 계좌를 통해 유치한 IRP 계좌가 전년 대비 2배 급증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지난 9월부터 연금 본부 내에 별도의 ‘연금고객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연금본부 인력을 총원해 연금컨설팅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퇴직연금은 물론 개인연금 고객 관리에도 힘쓰겠다는 목표다.

KB증권은 자산관리 컨설팅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고객의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고, 연금 상품에 손실이 발생하면 수수료를 감면하는 식의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199건 필리버스터’ 한국당 무리수 역풍

민생·경제·안전 등 모두 볼모로
‘한국당 해체 촉구’ 청원 올라와
“199번 봉쇄… 집단인질극”
다음 회기서 안전 상정·표결해야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전략에 대한 여론의 시선이 싸늘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한국당 해체 촉구’는 나흘만에 5만 2000명을 돌파했고,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절대 투표하지 않을 정당’ 1순위에 올랐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청와대 앞에 설치한 ‘투쟁전막’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필리버스터 권한을 인정해 달라”며 “평화롭고 정의로운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앞서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올라온 199개 전부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신청한 안건에는 ▲금융·산업계 숙원 ‘데이터 경제 3법’ 일부 ▲유치원 3법 ▲소상공인기본법 ▲청년기본법 ▲상생형 일자리를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기술독립을 위한 소재부품장비특별법 ▲포항지진특별법 ▲형제복지원 사건 등 진상 규명 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 등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과 국회의장 민생외면 국회파탄 규탄대회’를 열고 ‘필리버스터 보장, 민생법안 처리, 국회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고 있다.

거사법 같은 민생·경제·안전 법안이 담겼다. 대부분 각 상임위원회가 오랜 논의 끝에 합의한 법안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이 임시국회를 최대 199번 봉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단인질극’으로 규정하고 있다.

199개 안건 모두를 수중에 넣고 여론을 살피면서 법안을 하나씩 풀어주는 전략으로 풀이한다.

실제 ‘무제한 토론’으로도 부르는 필리버스터는 시간갈기에 불과하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로 지정한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

표결해야 한다.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신속처리 안전(패스트 트랙)’ 지정안 5건은 3일 모두 본회의의 부의한다. 한국당 입장에선 5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올해 정기국회 이후 임시회가 열리면 속수무책인 셈이다.

한국당은 무리수 전략을 내놓은 후 역풍을 맞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4월 ‘패스트 트랙’ 정국 때에 이어 또다시 한국당 해산 청원이 등장했다. 이 청원은 2일 오전 기준 5만 2293명이 동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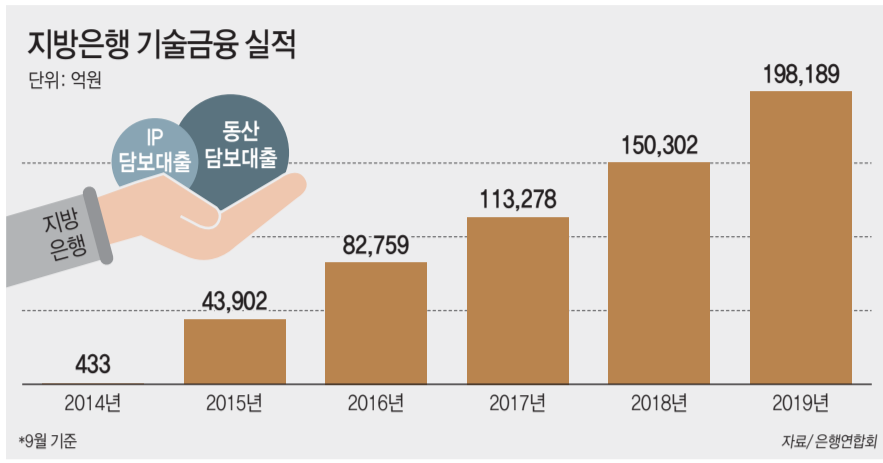
/석대성 기자 bigstar@

‘부동산담보 이제 그만’ IP-동산담보대출 팔건은 지방銀

6대 지방銀 기술금융 실적 19.7조
지난 2015년 동월비 3.3배 늘어나
IoT 원격시스템 도입 등 대출 확대

지방은행이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식재산(IP) 담보대출과 동산담보대출을 확대한다. 담보가 없는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해 지역경기 살리고, 지역금융도 회복하겠다는 포석이다. 내년부터는 IP·동산담보대출이 부실할 경우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는 회수지원 기구도 마련할 계획이어서 지방은행의 주 수익원으로 IP·동산담보대출이 자리잡을 모양새다.

2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9월 기준 6대 지방은행(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의 기술금융 실적은 19조 7411억원(4만5210건)이다. 지난 2015년 9월 4조3571억원에서 3.3배(15조384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부산은행과 대구은행은 각각 6조5449억원, 6조1786



억원 공급해 1·2위를 기록했다.

기술금융은 미래수의 창출이 기대되는 기술과 아이디어를 평가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기술금융은 신용기술평가서로 대출해 주는 신용기술대출과 특허 및 지식재산권으로 대출해 주는 IP담보대출로 분류된다. 지난해 말 금융당국은 지식재산금융활성화 계획을 발표하며 IP담보대출 실적을 기술금융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지방

은행의 IP담보대출이 증가하면서 기술금융 실적도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지방은행의 동산담보대출도 확대되는 추세다. 동산담보대출은 부동산 외의 기계·재고자산과 같은 실물자산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것을 말한다. 경남은행의 지난 6월 기준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153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1억원(92억원) 늘었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동산담보의 경

우 부동산에 비해 담보가치가 쉽게 떨어질 수 있고, 부실 시 담보를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우려가 적잖은 면이 있었다”며 “사물인터넷(IoT) 담보물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훼손이나 분실우려가 감소해 동산담보대출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내년 1월 IP·동산 담보대출이 부실할 경우 회수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설립할 계획이다. 정부와 시중은행이 돈을 모아 전문기관을 세워 해당 기관이 담보 IP를 매입, 은행의 대출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IP·동산 담보대출은 부동산 등 자산 담보가 소진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게 현실”이라며 “기구가 설립되면 지방은행의 IP·동산 담보대출도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방은행은 IP·동산담보대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

재 부산은행은 지난달 IP담보대출 상품 ‘창조형 혁신기업대출’을 선보였다. 지적재산권(IP) 보유기업 및 기술혁신 벤처기업 등 자금력은 부족하나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한다.

부산·경남·대구은행은 동산담보 대출시 담보물에 IoT 원격 관리시스템을 탑재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동산자산에 이상징후가 포착되면 현장에 긴급 출동해 도난이나 분실, 고의이전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IP담보대출이 기술금융에 평가되는 것처럼 올 하반기부터 동산담보대출 실적도 평가돼 동산담보대출 비중은 점차 늘어날 것”이라며 “부실화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해, 담보가 없지만 기술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NH농협은행

환전·송금 하고 상품권 받으세요

NH농협은행은 내년 2월 말까지 ‘모두가 즐거운 겨울 환전·송금 페스티벌’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페스티벌 기간 중 건당 미화 300달러 상당액 이상 환전하는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여행상품권 100만원(1명) ▲신세계 모바일상품권 1만원(500명)을 추첨해 제공한다. 농협은행을 해외체재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신규 지정하고 송금한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는 100명을 추첨해 NH포인트 3만점을 증정한다. 이와 함께 이벤트 기간 동안 환전 또는 영업점에서 해외송금한 모든 고객에게 ▲농협물 3000원 할인 ▲와이파이도 시락(포켓와이파이) 20% 할인의 제휴 서비스도 제공한다.

/안상미 기자 smahn1@

부산은행-칭다오농상은행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BNK부산은행은 중국 칭다오농상은행과 협약식을 갖고 신용공여한도도 상당 등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간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부산은행과 칭다오농상은행은 신용공여한도를 지금보다 2배 높은 약 1억 7000만 달러로 확대한다. 칭다오농상은행은 부산은행에 약 1억 1000만 달러로 한도를 늘리고, 부산은행은 칭다오농상은행에 6000만 달러로 한도를 상향한다.

부산은행 방성빈 경영기획본부장은 “칭다오농상은행은 부산은행의 중요한 글로벌 파트너로서 양행의 공동성장을 위해 상호협력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R·R·G’ 3대 경영원칙으로 모두의 가치창출 실현”

(Reset) (Rebuild) (Game)

하나금융 ‘출범 14주년’ 기념식
김정태 회장, 넥스트 2030 선포

하나금융그룹이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넥스트(NEXT) 2030 경영원칙’을 선포했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2일 서울 명동사옥 대강대에서 그룹 출범 14주년 기념식에서 “우리 앞에 새롭게 다가올 10년은 가치관과 기술이 급변하고 업종 간 경계가 사라지는 시대”라며 “신뢰와 휴머니티(Humanity)를 기반으로 손님과 직원, 주주, 공동체를 아우르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그룹의 경영원칙을 재정립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한 3대 경영원칙으로 ▲리셋(Reset) ▲리빌드(Rebuild) ▲게임(Game)을 제시했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함영주 부회장,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을 비롯한 그룹 관계사 CEO 외 임직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사진 왼쪽에서 네번째), 함영주 부회장(사진 왼쪽에서 두번째)이 직원 대표와 함께 ‘하나금융그룹, 미래를 코딩하다’라는 주제로 미래 키워드를 코딩하는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

에서는 지난 2005년 12월 1일에 출범한 하나금융그룹의 과거를 되짚어보고, 그룹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미래를 위한 3대 경영원칙을 선포했다.

김 회장은 “앞으로 하나금융그룹은 이익보다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창출하는 경영을 추구(Reset)하며 이를 위해 사업모델과 프로세스를 완전히 새롭게 재구축(Rebuild)하되 몰입과 소

통, 실행을 통해 게임(Game)처럼 즐겁게 해야 한다”며 “리셋, 리빌드, 게임이라는 3대 경영원칙을 통해 그룹의 미션인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을 실현하자”고 강조했다.

특히,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리빌드’를 통해 하나금융그룹의 강점을 바탕으로 사회와 손님의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사업모델(Business)

를 창출하고, 다양한 협업과 디지털을 통해 효율적인 프로세스(Process)를 구축해 손님과 직원의 경험을 향상시키는 한편, 몰입하고 소통하는 유연한 인재(People)인 금융 디자이너를 육성키로 했다.

하나금융그룹은 이번 ‘넥스트 2030 경영원칙’ 선포와 함께 그룹 출범 이후 사용해 오던 경영 슬로건인 ‘손님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를 내년부터 손님과 주주, 직원, 공동체를 아우르는 ‘모두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로 변경키로 했다.

또한, 새로운 경영원칙 선포를 계기로 사회공헌을 통한 가치창출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돕는 ‘하나 파워 온 임팩트’ 등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사회공헌위원회를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사업을 지속하는 등 그룹 내 사회공헌을 총괄하는 ‘행복나눔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홍민영 기자 hong93@

한화생명 차남규 부회장 사임... 여승주 ‘원톱’

임기 석 달 남기고 물러나

차남규 한화생명 부회장(사진)이 임기를 석 달 남기고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

한화생명은 차남규 부회장·여승주 사장 각자 대표이사 체제에서 여승주 사장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했다고 2일 공시했다.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뒀던 차 부회장은 지난달 30일 퇴임했다.

차 부회장은 2002년 한화그룹이 한화생명(구 대한생명)을 인수할 당시 지원



부문 총괄전무를 맡으며 한화생명에서 처음 근무를 시작했다. 이후 CEO 재임 기간 ▲자산 100조원 돌파 ▲수입 보험료 15조원대 달성 ▲보험금 지급능력평가 12년 연속 AAA 획득 ▲생명보험사 최초 베트남 진출 ▲보장성 보험 판매 위주의 체질 개선 ▲연평균 4300억대의 당기순이익 달성 등을 이루며 경영능력을 입증했다. /김희주 기자 hj89@

우리은행, 전상욱 신임 CRO 선임

우리은행은 2일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hief Risk Officer)로 전상욱 전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상무(사진)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전 신임 상무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카이스트(KAIST) 금융공학 석사과정을 거치면서 다수의 연구실적 과 전문지식을 가진 리스크 관리 전문가다. 특히 한국은행에서 약 7년간 통화금융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했고, 이후 아더네티즌, 베어링포인트, 에이티커니, 프로티비티 등 전문기관에서 기업 리스크 관리에 필요한 모델을 개발하



나 리스크 관리에 필요한 컨설팅 업무를 진두지휘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전 상무의 임기는 12월 4일부터 2년으로, 우리은행이 민영화 이후 외부에서 영입한 두 번째 C레벨 임원이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최고디지털책임자(CDO)로 황원철 상무를 영입해 현재 은행을 비롯한 그룹전체의 디지털 전략을 총괄하고 있다. /홍민영 기자

한화家 장남 김동관 전무, 부사장 승진

태양광 실적 인정... 3세경영시동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큐셀앤드첨단소재 전무가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한화큐셀은 김 부사장을 비롯한 14명에 대한 임원인사를 단행했다고 2일 밝혔다. 김동관 한화큐셀 부사장은 태양광 부문 사업을 크게 끌어올렸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2015년 전무가 된 지 4년 만에 승진했다. 김 부사장이 내년 1월 합병되는 한화큐셀과 모회사인 한화케미칼의 경영 전면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김 부사장은 미국 세인트폴고등학교와 하버드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한화그룹에 입사했다. 2010년 한화그룹 회장실 차장을 거쳐 2015년 1월부터 11월까지 한화큐셀 상무를 영입한 뒤 같은 해 12월 곧바로 전무로 승진했다. 김 부사장은 태양광 사업 영업·마케팅 최고책임자(CCO)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독일·일본 등 세계 주요 태양광 시장에서 한화가 점유율 1위를 달성하는



김동관 한화큐셀 부사장

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화큐셀 관계자는 “그룹의 태양광 사업은 2010년 사업 진출 이후 한때 철수설이 나올 정도로 암흑기를 겪었으나 김 전무가 2012년 1월 태양광 사업에 합류한 이후 독심있게 사업을 추진해 지금과 같은 결실을 봤다”고 말했다.

한편 김 부사장은 내년 1월 1일 출범하는 한화케미칼과 한화큐셀 합병법인(가칭 한화솔루션)에서 전략부문을 맡는다. 태양광을 비롯해 석유화학, 소재까지 아우르는 한화솔루션에서 핵심 직책을 맡아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기업가치 성장을 견인한다는 목표다. /김수지 기자 skim2935@

베트남 디지털혁신, SDS가 나선다

(소비코 그룹)

트랜스포메이션 지원 등 MOU
물류 신규 사업기회 창출하고
디지털금융·유통 등 협력키로

삼성SDS는 지난주 삼성SDS 잠실캠퍼스에서 베트남 소비코 그룹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지원 및 물류 혁신을 위한 사업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베트남 총리의 경제사절단으로 한국을 방문한 소비코 그룹 응웬 탄 흥 회장은 흥원표 삼성SDS 대표이사와 워크숍을 통해 양사 협력 분야를 집중 논의했다.

1992년 하노이에서 설립된 소비코는 베트남 최대 민영 항공사 비엠텟을 포함, 금융, 유통, 부동산, 에너지 분야 계열사를 보유한 그룹으로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물류 사업을 비롯해 디지털 금융, 유통, 스마트시티,



삼성SDS 흥원표 대표이사(왼쪽)와 소비코 그룹 응웬 탄 흥 회장이 지난주 삼성SDS 잠실캠퍼스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지원 및 물류 혁신을 위한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워크숍을 진행하며 양사 협력 분야를 집중 논의했다. /삼성SDS

멤버십 프로그램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게 된다. 특히 물류 분야에서는 신규 사업 기회를 공동으로 창출할 계획이다.

소비코 그룹은 삼성SDS의 솔루션, 플랫폼과 사업 경험을 적용해 기존 서비스의 디지털 혁신을 이뤄내고, 더 많은 사업 기회를 공동 개발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삼성SDS는 ‘대외사업을 통한 혁신적 성장’ 경영방침에 따라 지난 7월 베트남 IT서비스기업 CMC에 전략적 투자를 하는 등 동남아 기반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KT “AI 로봇이 객실로 수건 배달”

국내 최초 AI 호텔로봇 ‘엔봇’ 선배

KT는 국내 최초 인공지능(AI) 호텔인 노보텔 엠베서더 서울 동대문 호텔 & 레지던스(이하 노보텔 엠베서더 동대문)에 AI 호텔 로봇 ‘엔봇(N bot)’을 상용화했다고 2일 밝혔다.

KT는 지난해 국내 최초로 선보인 ‘가가지니 호텔’ 솔루션을 진화시켜 AI 호텔 로봇을 상용화했다. 객실 내 가가지니 호텔 단말을 통해 음성이나 터치로 객실용품을 요청하면 배달은 호텔 로봇이 대신한다.

AI 호텔 로봇은 KT 융합기술원에서 자체 기술로 개발한 3D 공간맵핑 기술, 자율주행 기술 등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이 적용돼 객실까지 자율주행으로 이동할 수 있다. 호텔 엘리베이터와의 통신을 통해 스스로 엘리베이터를 승하차 하며 층간 이동이 가능하다.

노보텔 엠베서더 동대문은 약 100여 개 객실에서 AI 호텔 로봇을 통한 호텔



KT 흥보모델들이 AI 호텔 로봇을 소개하고 있다.

용품 무인 배달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후 서비스 제공 객실을 확대할 계획이다.

가가지니 호텔로봇을 이용한 이벤트도 마련했다. 오는 12월 24일과 25일 이틀간 크리스마스를 맞아 엔봇이 호텔 로비를 순회하며 체크인 고객을 대상으로서프라이즈 선물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AI 호텔 로봇 도입과 함께 기존 안다즈에 적용된 다국어 서비스가 노보텔 엠베서더 동대문으로 확대 적용됐다. 가가지니 솔루션이 적용된 전체 AI 호텔에 다국어 서비스가 적용될 예정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

LG 올레드 TV, 해외서 ‘올해 TV’ 휩쓸어

美 타임지·英 IT 매체 등서 선정

LG 올레드 TV가 전세계에서 올해 최고 TV 자리를 휩쓸고 있다. 2일 LG 전자에 따르면 올레드 TV는 최근 미국 USA투데이 선정 ‘올해의 베스트 100 제품’ 중 ‘베스트 TV’를 차지했다.

올레드 TV는 높은 명암비와 블랙 표현, 부드러운 움직임과 시야각 및 색재현 등에서 극찬을 받았다.

미국 영상 전문 매체 ‘하이테크 다이제스트’에서도 ‘올해 베스트 4K TV’로 올레드 TV를 올렸다. 완벽한 블랙과 HDR, 인공지능 기능 등이 호평을 받았다. 캐나다 ‘알팅스’도 올레드 TV를 ‘최고 TV’에 올렸다.

미국 타임지도 LG 시그니처 올레드 8K를 ‘미래의 TV’로 꼽았다. ‘올해 최



멕시코시티 샘플룸에서 연말을 맞아 LG TV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 /LG전자

고의 발명품’으로도 선정해 시장 주도력까지 인정했다.

영국에서도 올레드 TV를 향한 호평이 이어졌다. IT 매체 ‘트러스티드 리뷰’는 올레드 TV를 ‘올해의 TV’에, L

G 시그니처 올레드 R를 ‘올해의 혁신 제품’으로 선택했다. 영국 ‘왓하이파이’ 역시 ‘최고 TV’에, ‘AV포럼’도 ‘올해 최고 TV’와 ‘최고의 게이밍 TV’에 올레드 TV를 낙점했다. /김재용 기자 juk@

삼성중, 내빙 원유운반선 2척 수주... 올 목표 달성 ‘눈앞’

총 71억 달러 수주... 작년 실적 넘어

삼성중공업은 2일 유럽 지역 선사에서 아프리카막스급 내빙 원유운반선 2척을 모두 1875억원(1억6000만 달러)에 수주했다고 공시했다.

이들 선박은 2022년 3월까지 인도될 예정이다. 아프리카막스(AFRamax, Amax)급은 수요가 가장 많고 경제성이 뛰어난 8만5000~12만5000DWT(재화중량톤수, 선박 자체 무게를 제외한 순수한 화물 적재 용량) 크기 선박이다.

이번에 수주한 내빙 원유운반선은 영하 30도의 극한 환경에서 최대 70cm 두께 얼음과 충돌해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으며, 일반 동급 선박에 비해 가격이 2배 가까이 비싸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05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양방향 쇄빙 유조선 수주



삼성중공업이 지난해 인도한 동급 내빙 원유운반선. /연합뉴스

하며 쇄빙 상선 시장을 개척했고 2008년에는 세계 최초 극지용 드릴십을 수주했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계약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71억 달러를 수주해 올해 목표 78억 달러의 91%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실적(63억 달러)을 넘어섰다.

선종별로는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13척(11월 25일 공시분 제외), 컨

테이너선 6척, 원유운반선 16척, 석유화학제품운반선 2척, 특수선 1척, 부유식 원유생산 저장 및 하역설비(FPSO) 1기 등 총 39척이다.

삼성중공업은 최근 클락슨리서치가 발표한 10월 말 기준 전세계 조선소 순위에서 수주잔량 583만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로 4개월째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

SKC&C

북미·유럽 ‘배틀그라운드’ 클라우드 서비스

SK㈜ C&C는 글로벌 게임 기업 펍지주식회사가 ‘클라우드 제트’를 기반으로 ‘플레이어인노운스 배틀그라운드’의 북미, 유럽지역 클라우드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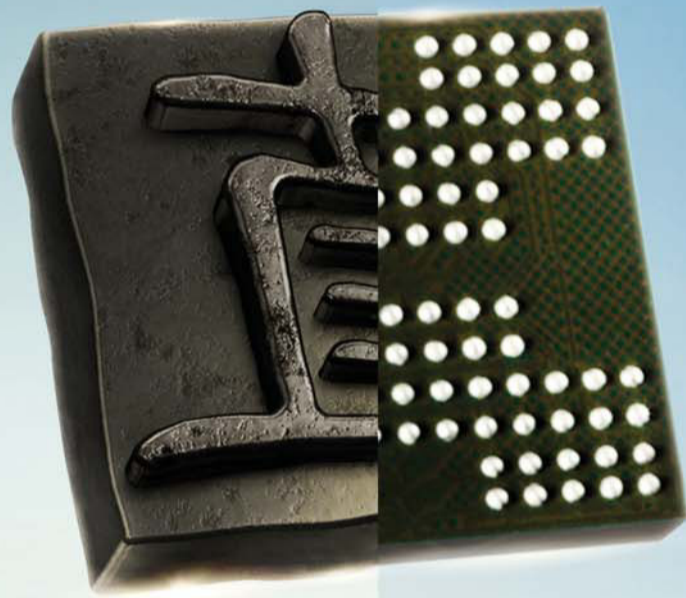
SK㈜ C&C는 ‘클라우드 제트 vGDC’를 통해 북미, 유럽 지역의 배틀그라운드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클라우드 제트 vGDC는 전용 물리 서버를 할당하는 IDC와 인프라를 빌려 쓰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장점을 하나로 묶은 베어메탈 기반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다.

랙 단위 베어메탈 서버는 물론 대용량 트래픽, 프리미엄 서비스 등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다른 고객과 센터내 서버 자원을 나눠 쓰지 않고 전용 물리 서버를 클라우드 방식으로 제공해 배틀그라운드와 같은 대용량 고성능 게임의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요구하는 게임사들에게 안정적이다.

클라우드 제트 vGDC는 클라우드 제트 포털에서 손쉽게 주문 가능하며 24시간 내에 전세계 데이터센터에서 사용 가능하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세계 최초 금속활자 도시 청주에서 세계적인 첨단 반도체를 만듭니다



1377년 청주 흥덕사
세계최초 금속활자 인쇄본 직지 간행



2019년 청주 SK하이닉스
세계최초 128단 4D 낸드플래시 개발



We Do Technology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10주년생일 기아차가 쏜다... K7 최고급인테리어 기본장착

X에디션, 퀵팅 나과 가죽시트 기본 등 12.3인치 클러스터, 양문형 암레스트 엔트리 제외 전 트림서 18인치 휠 선택



기아자동차가 2일 새롭게 선보인 K7 프리미어 X 에디션.

기아자동차가 준대형 세단 K7 탄생 10주년을 기념하는 K7 스페셜 트림을 출시했다.

기아차는 준대형 시장 고객들의 핵심 니즈를 적극 반영한 K7 프리미어 'X(엑스) 에디션'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X는 10을 의미하는 로마 숫자에서 비롯됐다.

X 에디션은 2.5가솔린 전용으로, 기존 2.5가솔린 주력 노블레스 트림을 기반으로 최고급 트림인 시그니처에만 있던 퀵팅 나과 가죽시트, 스웨이드 내장

재를 기본으로 넣었다. K7 프리미어 2.5가솔린에서 고객 선호도가 높은 옵션인 컴포트와 스타일의 핵심 품목인 ▲12.3인치 클러스터 ▲양문형 콘솔 암레스트 ▲휴대폰 무선 충전 시스템 ▲운

전석 메모리 시트 ▲전동식 틸트&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 등도 기본으로 적용했다. 가격은 3505만원이다. (개별소비세 3.5% 기준)

기아차는 또 하이브리드차도 디자인

을 중시하는 고객들이 늘어남에 따라 엔트리를 제외한 K7 하이브리드 전 트림에서 18인치 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기아차는 10주년을 기념해 선택형 보증연장 무상제공, 중고차 가격 보장, 신차 교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K7 프리미어 헤리티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K7을 오토할부로 출고하는 개인과 개인사업자고객은 선택형 보증연장 혜택을 받는다.

일반부품 기준 기존 무상 보증기간 3년·6만km에 더해 1년·6만km(거리형), 2년·4만km(기본형), 3년·2만km(기간형) 가운데 선택해서 추가 보장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개인 출고고객에게는 국산 브랜드 최고 수준, 최장 기간 중고차

가격 보장 비율을 약속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기아차 재구매를 전제로 1년 최대 77%, 2년 70%, 3년 64%, 4년 57%, 5년 50% 잔가를 보장한다. (LPi 제외)

K7 프리미어를 구매하고 1년 후 K5, 쏘렌토, 카니발 신형 모델로 바꿔 탈 수도 있다. 오토할부로 K7 프리미어를 구매하면 선수금 없이 1년간 이지만 내고 이용하다 1년 후 중고차 잔존가치 77%를 보장받고 남은 할부금을 낸 뒤 차량을 교환할 수 있다. 신형 모델 구매 시취등록세까지 지원(최대 200만 한도)한다.

K7은 기아차 세단 브랜드인 'K시리즈'에서 처음으로 K를 적용한 모델로 2009년 11월 24일 출시 이래 올해 11월 6일 기준으로 국내 누적 35만대 판매를 돌파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현대로템 2층車, 호주 시작으로 납품 본격화 커져야 산다... 中 이어 日 조선도 덩치 키우기

현대로템이 제작 중인 호주 시드니 2층 전동차의 초도 물량이 출고됐다.



현대로템이 출고한 호주 시드니 2층 전동차.

현대로템은 호주 시드니 뉴사우스웨일스주 교통부에 납품될 2층 전동차 554량 중 초도분 20량이 창원공장에서 호주 시드니로 출고됐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출고된 차량은 10량 1편성 구성의 2개 편성이다.

이번에 출고된 시드니 2층 전동차는 현대로템이 지난 2016년과 올해 각각 512량과 42량을 수주한 사업의 초도 물량이다. 현대로템은 이 사업을 통해 호주 철도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했다.

현대로템이 납품 중인 시드니 2층 전동차는 호주 남동부에 위치한 뉴사우스웨일스주 교외선에서 운영될 차량으로 이번에 출고된 차량은 현지 시운전을 거쳐 영업운행에 투입될 예정이다.

현대로템은 이번 출고를 시작으로 시드니 2층 전동차 납품이 본격화 되면서

마지막 차량 납품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해 향후 현지에서의 추가 사업 공략 시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호주 시드니 2층 전동차는 운행최고속도 160km/h에 10량 1편성으로 구성된다. 현대로템이 지난 2016년 512량을 약 8894억원에 수주한 것에 이어 올해 추가 물량 42량을 약 826억원에 수주한 바 있다. /양성운 기자

日 1·2위 조선사 제휴... 韓에 도전장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관련

중국에 이어 일본 조선사가 업무 제휴를 이루며 국내 조선업계 도전장을 내밀었다. 현재 현대중공업그룹은 대우조선해양과의 인수합병을 위한 기업결합심사를 진행 중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최대 조선업체인 이마바리조선과 2위 업체인 재팬마린유나이티드(JMU)가 자본·업무 제휴에 합의했다. 제휴를 통한 몸집 불리기에 나선 것으로, 한국과 중국에 뒤진 수주 실적 때문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일본은 그동안 중소조선사가 시장을 움직였다. 이에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대형 선박 건조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조선·해운 분석기관인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일본 조선사의 올해(1~10월) 선박 수주는 233만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이상 감소했다.

이마바리조선(525만CGT)과 JMU(216만CGT)의 지난해 말 기준 수주 잔량(남은 일감)을 합치면 741만CGT로 현대중공업(1114만CGT)을 바짝 뒤쫓게 된다.

지난해 이마바리조선의 조선 건조량은 449만t(톤)으로 일본 1위를 차지했다. JMU는 228만t으로 뒤를 이었다. 두 업체의 실적을 단순 합산하면 677만t이 된다. 이 경우 현대중공업(752만t)에 근접한다.

두 업체는 일본의 독점 규제와 관련한 절차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제휴를 추진한다. 출자 비율과 제휴 내용은 내년 3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중국은 지난 26일 최대 국영조선사인 중국선박공업(CSSC)과 2위 중국선박중공(CSIC)이 합병해 중국선박공업그룹(CSG)이 공식 출범했다. 이번 합병으로 탄생한 CSG은 147개의 연구기관과 계열사, 상장사를 거느린 매머드급

조선소가 됐다. 직원 수만 31만명에 이른다. 총 자산규모는 7900억위안(약 13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이 진행 중인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마무리하게 되면 일본과 중국이 이에 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풀어야 할 일은 많다. 현대중공업은 한국·중국·일본·유럽연합(EU)·싱가포르·카자흐스탄 등 여섯 곳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해 현재 카자흐스탄에서만 승인을 받았다. EU에서는 내년 상반기 결론 날 전망이다.

또 하나의 당면과제 중 하나는 노조와의 갈등이다. 노조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를 두고 꾸준히 반대외사를 표해왔다. 지난 5월에는 물적분할에 반대해 주주총회장을 점거하고 파업을 이어오며 투쟁을 지속해왔다. 최근에는 새 집행부가 선출됐지만 인수인계 기간을 고려하면 현재 임금 및 단체협상 연내 타결은 불가능하다는 전망이다. /정연우 기자 ywj964@

현대글로벌비스 스타트업 돕는 '스마트 무브 챌린지'

플랫폼 비즈니스 아이디어 발굴



현대글로벌비스가 신규 플랫폼 비즈니스 아이디어 발굴과 스타트업 육성에 나선다.

현대글로벌비스는 신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스마트 무브 챌린지'를 개최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참가 대상은 창업 7년 이내의 스타트업이나 대학(원)생을 포함한 예비창업자다.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는 개인 또는 4명이 하로 팀을 꾸려 12월 31일까지 공모전 이벤트 페이지에서 제안서 접수를 완료하면 된다.

현대글로벌비스 종합물류연구소는 플랫폼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신사업을 추진하고, 나아가 스타트업 지원을 통해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이번 공모전을 마련했다.

공모전 주제는 현대글로벌비스의 기존 5대 사업(물류·해운·자동차부품·중고차·트레이딩 등)을 포함해 현대차그룹의 사업 영역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플랫폼 기반 신사업 아이디어다. 현대글로벌비스는 접수된 제안서를 대상으로 '아이디어의 혁신성', '사업 연계 가능성', '기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며 내년 1월 중 서류심사 및 프레젠테이션 평가를 진행해 최종 5개 팀을 선정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효성중 'AMS', 한국전력 빅데이터와 기술력 강화 MOU

(자산관리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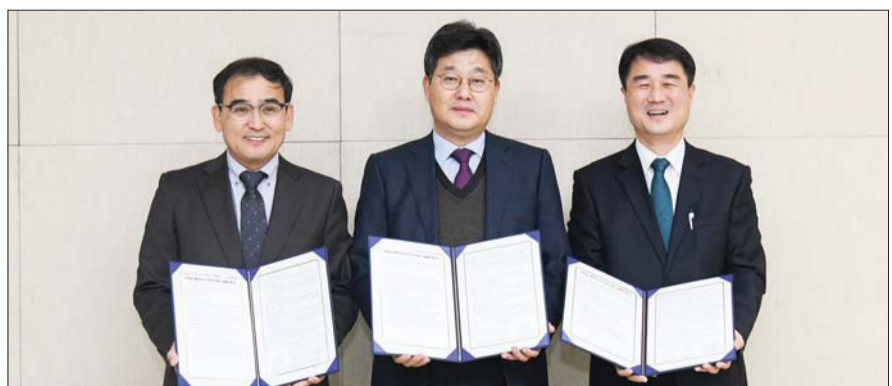
전력설비 예방진단·자산관리 협력 AMS 세계시장, 매년 20%이상 성장

효성중공업이 한국전력과 손잡고 차세대 전력 시장 공략을 시작했다.

효성중공업은 최근 한국전력공사와 '전력설비 예방진단 및 자산관리 시스템 분야의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효성중공업은 이번 MOU를 통해 국내 최초로 개발한 자산관리시스템(AMS)과 한전이 보유한 전력 운용 빅데이터 분석 및 설비 유지보수 노하우를 더할 예정이다. 전력 설비 예방 진단 분야 기술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AMS는 전력 설비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사고·고장 등 이상 징후 데이터를 분석해 사전 진단하는 시스템이다. 최적의 유지보수를 가능케한다. 전력 설비 고장률을 최대 80%까지



효성중공업은 한국전력공사와 MOU를 체결했다. (왼쪽부터) 한국전력공사 한상규 디지털변환처장, 효성중공업 유호재 전무, 한국전력공사 박상서 송변전운영처장 /효성중공업

낮출 수 있고 고장 복구와 유지보수 비용도 30% 이상 절감 가능하다. 무인 스마트 변전소도 운영할 수 있다.

AMS는 세계 시장이 매년 20% 이상 성장하며 2023년 3조5000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다. 효성중공업은 지난해 국내 최초로 개발하고 상용화에 나섰으며, SK에너지와 포스

코 포함제철 등에 적용했다. 지난 10월에는 인공지능을 적용한 'AMOUR' 솔루션으로 업그레이드하기도 했다.

효성중공업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전력이 보유한 전력설비와 광범위한 운영 데이터 사례 등을 적극 적용해 시스템 수준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김재용 기자 juk@

키움도 베트남증권사 인수추진... 국내 '빅6' 호치민대첩

3분기 성장률 7.3% 목표치 훌쩍 미·중무역분쟁 수혜국 등 기대감 미래에셋대우, 600억원 유상증자 상반기 순익 81억... 전년비 76%▲

국내 주요 증권사가 베트남에서 격돌한다.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을 통해 동남아시아에서 새로운 수익창출을 모색하고 있는 것. 신흥국 증시의 대표주자로 떠오른 베트남의 성장 가능성에 증권업계가 공감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까지 베트남에 안착한 증권사는 총 6곳이다. 미래에셋대우가 지난 2007년 첫 발을 내딛은 이후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KB증권, 한화투자증권이 잇따라 베트남 땅을 밟았다. 현지법인을 세운 미래에셋대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베트남 증권사를 인수해 거점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현지화 작업을 진행했다.

◆ 국내 증권사 베트남서 '진검승부' 키움증권도 베트남 현지 증권사 지분 인수를 추진한다.

〈증권사별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시기 및 인수사〉

증권사	설립시기	인수사
미래에셋대우	2007년	현지법인
NH투자증권	2009년	CVB증권
한국투자증권	2010년	EPS증권
신한금융투자	2015년	남안증권
KB증권	2017년	매리타임증권
한화투자증권	2019년	HFT증권

키움증권 관계자는 2일 "베트남 현지 모 증권사 지분 인수를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협상 중인 구체적인 증권사에 대해서는 "아직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알파증권이나 SJC증권 같은 중소형 증권사가 대상이 되지 않겠냐는 것이 업계 추측이다. 지분 인수에 성공한다면 키움증권은 베트남 시장 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베트남에 진출한 증권사 역시 베트남에서 영역을 넓혀나가기 위해 분투 중이다. 특히 KB증권은 '베트남 특화' 증권사를 자처했다. 올해만 두 차례 베트남 투자 세미나를 열었다. 원화

거래하는 자사 해외주식 매매 서비스에 베트남 시장을 추가오픈하고 리서치센터에 베트남 시장 자체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미 베트남 덕을 토틈 본 미래에셋대우는 지난달 현지법인인 미래에셋베트남에 1조1560억동(약 6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했다. 미래에셋베트남의 올 상반기 순이익은 8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 늘었다. 늘어난 자본 규모를 바탕으로 투자은행(IB)와 자기자본투자(PI), 기업공개(IPO) 등 사업 범위를 넓혀나갈 방침이다.

◆ 베트남 '훈풍', 이유는? 베트남은 지난 3분기 성장률이 7.3%

로 정부 목표치를 훌쩍 넘었다. 여기에 미·중 무역분쟁 수혜국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데다 지난 9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파격적인 통화정책까지 더해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실물경기 부진이 이어지는 와중 주식시장 상승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긍정적인 이슈가 많다. 베트남의 호치민거래소가 지난달 새로 3개 지수를 발표하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내년 하반기에 외국인 투자제한을 완화시킬 수 있을만한 증권법과 기업법 개정도 앞두고 있다. 모건스탠리인터네셔널(MSCI) 신흥국(EM)지수 편입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내년까지 정부 지분 최대 30%까지 제3자에 매각하겠다는 국영기업 민영화 정책 역시 투자처를 찾는 외국인투자자에게 호재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베트남 주요 종목에 분산 투자할 것을 추천한다. 오펜서삼성증권리서치센터장은 "글로벌 시장이 흔들리거나 단기에 큰 이벤트가 존재할 경우 베트남 주요

종목과 관련 주가들이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의 지역적 리스크가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의 사업 확장을 부추길 것이라 분석도 나온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홍콩을 둘러싼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홍콩법인 수익을 잠탈할 수 없다"며 "내부에서 현지법인의 영업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고 말했다.

베트남은 증권사의 해외 현지법인 이익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지난해 국내 증권사의 해외 점포 순익 현황은 홍콩(5760만달러), 베트남(1830만달러), 인도네시아(1770만달러)를 기록했다. 첫 번째에 해당하는 홍콩에서의 업무 범위가 제한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라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에서 중개와 IB 부문을 넓혀 수익원을 다양화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창민 KB증권 연구원은 "여러 이슈들이 진행되고 있다. 진행 속도에 따라 베트남의 추가적인 증시 상향 조정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증권 다이제스트

메리츠증권증권

12일 해외선물 투자세미나

메리츠증권증권은 강남금융센터가 오는 12일 오후 5시 강남금융센터 7층 대회의실에서 해외선물 투자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투자자들 사이에서 높은 거래 비중을 보이고 있는 주가지수선물 거래와 관련 '각 거래소별 대표 주가지수선물 상품소개' 및 '주가지수선물을 활용한 투자전략'을 다룰 예정이다. 강남금융센터 흥준서 센터장은 "고객들에게 생생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고자 이번 설명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무료로 참석 가능하다. /손엄지 기자



하이투자증권

100억 규모 ELS 모집

하이투자증권은 오는 6일 오후 1시까지 주가연계증권(ELS)을 총 100억 원 규모로 공모한다. 'HI ELS 2019호'는 니케이(NIKKEI)225 지수, 홍콩항셱중국기업지수(HSCEI), 유로스톡스(EUROSTOXX)5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ELS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90%(6개월), 90%(12개월), 85%(18개월), 85%(24개월), 80%(30개월), 65%(36개월) 이상이면 최대 15.0%(연 5.0%)의 수익을 지급한다. /송태화 기자

“취임즉시 금투협 정상화... 규제완화·세제개선 추진”

신성호 전 IBK투자증권 사장 금투협회장 출마 선언

“어려움에 처한 협회가 다시 융성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신성호 전 IBK투자증권 사장은 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5대 금융투자협회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며 같이 밝혔다.

신 전 사장은 1965년 충남 논산 출생으로 고려대학교 통계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통계학 석사를 취득했다.

그는 1981년 삼보증권(대우증권 전신)에 입사해 대우증권 투자전략팀장, 동부증권 리서치센터장, 우리선물(현 NH선물) 대표, IBK투자증권 대표를

두루 거친 ‘증권맨’이다.

지난 2008년 8월부터 2009년 7월까지 1년여 동안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 본부장, 경영전략본부장을 지낸 경력은 그의 강점이다.

신 전 사장은 “협회에 근무하면서 협회에 많은 정을 갖고 있다”면서 “취임즉시 인사와 조직제도를 정비해 협회를 곧 정상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협회 경영지원본부장 당시 증권협회,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 3개 노조 소통을 통해 위로금 지급 없이 6개월 만에 통합을 완료한 바 있다”면서 “협회 직원들이 당시에도 나를 많이 따랐기 때문에 직원들을 잘 이끌어 회원사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협회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증권업계 발전을 위해 크게 세 부분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제도 중 규제완화 ▲신사업부문 제도 관련 ▲세제개선 논의 관련 등이다.

신 전 사장은 “아직 정식 선거기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다”면서도 “제도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명분과 논리를 정립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설득 대상자를 현장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투자협회장 후보자 접수 기한은 이달 4일 오전 10시까지다. 현재 신 전 사장과 함께 나재철 대신증권 사장, 정기승 KTB자산운용 부회장이 출사표를 던졌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



신성호 전 IBK투자증권 사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다. /손엄지 기자

서울 신안산선·동북선 호재... 수도권 아파트시장 '관심'

인서울·더블역세권·신축 조건 갖춰 신안산선, 안산~여의도 25분 걸려 동북선, 상계~왕십리 환승없이 25분

서울 서남부와 동북부를 관통하는 신안산선과 동북선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수도권 부동산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노선의 영향권에 있는 단지들은 부동산 시장을 주도하는 '인(in) 서울', '더블 역세권', '신축'이란 조건을 모두 갖추게 되기 때문이다.

신안산선은 경기도 안산~시흥~광명~서울 구로디지털단지~영등포~여의도 등 총연장 44.7km, 15개 정거장으로, 2024년 완공시 안산에서 여의도가

지 25분이면 닿을 수 있어 이동시간이 약 50~75% 단축된다.

동북선은 상계~하계~미아사거리~고려대~제기동~왕십리 등 16개 정거장, 총 연장 13.4km다. 동북선이 완공되면 상계에서 왕십리까지 환승 없이 25분이면 도착 가능해 강북권 교통환경이 개선된다.

특히 지난 9월 신안산선 착공식이 열린 데다 동북선이 내년 초 착공을 앞두고면서 전철역 개통이 이미 해당 지역 아파트 가격에 반영되고 있다.

강북권도 동북선 호재를 누리고 있다. 노원구, 성북구는 동북선 영향으로 신축 아파트 가격이 뛰고 있다. 특히 북서울 꿈의숲을 끼고 있는 월계로를 따라 동북선 정류장이 다수 정

차해 주변이 최대 수혜 지역으로 꼽힌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분양가 상한제로 서울 시내 역세권 신축 아파트가 귀해지고 있어 신철 철도 인근 아파트값은 더 오를 것”이라며 “연말과 내년 초 분양을 앞둔 신안산선, 동북선 인근 분양 단지 분양도 순조로울 전망”이라고 말했다.

신안산선과 동북선 수혜 지역 분양 단지로 신길뉴타운 3구역에서 포스코 건설이 이달 '더샵 파크프레스티지' 799가구 중 316가구를 일반공급한다. 신안산선이 점차 예정인 신평역 뿐만 아니라 2022년까지 도보권에 신평역 경전철(서울지방부청역) 개통을 앞두고 있다.

동북선 인근에서는 한신공영이 강북구 미아동 3-111 일대 재건축으로 '꿈의숲 한신더휴' 203가구 55~84㎡ 117가구를 일반분양 중이다.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과 미아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으며, 미아사거리역에 동북선 경전철이 점차 예정이다.

내년에는 장위뉴타운 4구역에서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상태로 현재 이주 및 철거 마무리 단계에 있다. 시공사로 GS건설이 선정돼 총 2840가구를 공급한다. 길 건너 장위10구역도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1968가구의 아파트를 짓는다.

이르면 내년 초 분양에 들어갈 계획이다. 두 단지는 6호선 돌곶이역 역세권 입지로 미아사거리역 등 북서울 꿈의숲 주변에 정착하는 동북선을 이용할 가능하다. /이규성 기자 peace@

디지털기술, 결제부터 소비자 권익보호까지 ‘하나’로

카드의 디지털혁명

하나카드

비자 토큰 기술, 국내카드사 첫 적용
업계 최초 포인트 기반 체크카드 출시
디지털 능력 배양... HDU 프로그램



무선통신) 단말기에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결제가 이뤄진다.

하나카드의 신용·체크카드가 없는
고객이라면 ‘하나1Q페이’ 앱을 설치한
뒤 ‘카드바로발급’을 진행하면 된다.

플라스틱 카드 없이 1Q페이 앱에 카
드를 등록하면 해외 110여개국에서 모
바일 터치 결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
으며, 30여개 국가에서는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하나1Q페이와
함께 NFC 결제가 되는 국가로 여행을
하면 환전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며
“해외에서 로밍 와이파이(도시락) 선불
유심을 이용하는 고객도 앱만 설치하면
누구나 편리하게 NFC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카드는 10월부터 마스터카드와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내년
에는 유니온페이와도 기술 제휴를 진행
할 예정이다.

◆ 포인트 계정만으로 체크카드 발급

하나카드는 업계 최초로 포인트를 기
반으로 한 체크카드를 내년 초 출시한다.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

매해 소멸되는 카드 포인트를 막고,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기존 체크카드는 계좌를 연동해 발급
받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포인트
기반 체크카드는 별도 은행 등 금융기
관의 결제계좌 없이 고객이 보유한 포
인트 계정만으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은행 계좌 개설이 어려운
고객(외국인, 미성년자 등)도 간편하게
체크카드를 발급·이용할 수 있을 것이
라는 게 하나카드 측의 설명이다.

하나카드는 우선 하나멤버스 회원을
대상으로 체크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다.

하나멤버스에 가입한 고객이라면 누
구나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하나카드의 HDU(Hana Digital University) 프로그램.

/하나카드

체크카드 거래 시 하나머니가 차감된
다. 잔여포인트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
서 실용적인 활용이 가능하다.

또 국제브랜드로 카드를 발급하면 별
도의 환전이나 해외 이용 수수료 없이
포인트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단순히 포인트만 사용했을 때는 받을
수 없던 추가적립 및 캐시백 할인 등의
추가혜택도 받을 수 있다. 포인트가 부
족할 경우엔 자동충전을 진행할 수 있
으며, 체크카드에 30만원 한도 내의 신
용을 제공해 결제의 편의성을 제고했
다.

◆ 임직원 디지털 교육... 디지털 체력 ↑

하나카드는 내부 구성원들의 디지털
마인드 및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HDU

(Hana Digital University)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다.

HDU 프로그램에 선발된 직원은 빅
데이터 및 디지털 비즈니스 영역에 대
한 교육을 제공받는다.

최근에는 비자 이노베이션 센터(VI
SA Innovation Center)와의 협업을
통해 빅데이터 기반 모델 및 디지털 서
비스를 실제 개발·업무에 적용하는 성
과도 이뤘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전 임직원을 대
상으로 디지털 역량의 기반이 되는 빅
데이터·코딩 교육 등을 적극 실시해 조
직의 디지털 체력을 갖추나갈 것”이라
고 전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손해보험사도 어닝쇼크... 순익 24% ↓

(올 1~3분기)

금감원 ‘손보사 경영실적 잠정치 발표’
장기보험·자동차보험 손해율 증가

올해 1~3분기 손해보험사의 당기순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4.6% 감소했
다. 장기·자동차보험 등의 손해율이 급
등하면서 보험영업손실이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금융감독원이 2일 발표한 ‘2019년 1
~3분기 손해보험회사 경영실적(잠
정)’ 자료에 따르면 3분기 기준 손보업
계 당기순이익은 2조2000억원으로 전
년 동기 대비 24.6%(7000억원) 줄었다.

지난 2014년 보험사의 회계연도 변경
이후 지속적으로 늘던 3분기 누적 당기
순이익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감소
했다. 2014년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2조2000억원(16.8%)을 기록했다. 이후
2018년 2조9000억원(-17.6%)으로 줄
어든 후 내림세를 이어갔다.

올해 3분기까지 보험영업손실은 3조
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8000억원)
보다 1조9000억원(106.2%) 늘었다. 장
기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증가
하며 손실확대로 이어진 것이다.

장기보험이 손실 규모는 3조3000억원
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1000억원
(48.1%) 늘었다. 판매경쟁에 따른 사업
비 지출이 지난해 8조5000억원에서 올해
9조5000억원으로 11.6% 증가했다. 실손
보험 등 보험금 지급도 33조1000억원에
서 34조7000억원으로 4.7% 늘었다.

자동차보험은 정비요금 인상과 취업
가능연한 상향 등으로 보험금 지급이 늘

면서 손실규모가 8000억원으로 전년 동
기 대비 6000억원(303.1%) 증가했다.

반면 고금리 채권 등의 처분이익 증
가로 투자이익이 커지면서 순이익 감소
규모가 축소됐다. 투자이익이 6조7000
억원으로 전년 동기(5조9000억원) 대비
9000억원(14.5%) 늘었다.

원수보험료(매출액)는 66조9000억원
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3000억원
(5.2%) 증가했다. 장기보험 매출액은
보장성보험의 판매경쟁이 지속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4.8% 오른 39조6000억
원을 기록했다. 자동차보험 매출액은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와 보험료 인상효
과로 전년 동기 대비 4.3% 늘어난 13조
원으로 나타났다.

9월 말 손보사의 총자산은 319조원으
로 전년 동기 말(290조원) 대비 10.0%
(28조9000억원) 늘었다. 손보사의 총자
산이익률(ROA)은 0.95%, 자기자본이
익률(ROE)은 7.12%로 글로벌 저금리
환경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금감원은 “사업비 증가와 손해율 악
화에 따른 장기보험의 이종교와 자동차
보험의 손익개선 지연으로 보험영업손
실이 심화되는 가운데, 단기 실적 방어
를 위한 보유자산의 매각은 향후 투자수
익률 악화 등 장기적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보사는 현재와 같은 단기적
외형경쟁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경영
전반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도 건전성 악화를 초래하는 상품
개발, 영업경쟁 및 자산운용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
라고 밝혔다.

/김희주 기자 hj89@

올 3분기 성장률 2.0% 사수 ‘촉각’

한은, GDP 증가율 잠정치 발표

지난달 2.2% → 2.0% 하향 조정
전망치대로면 10년만에 최저치

한국은행이 3일 3분기 실질 국내총생
산(GDP) 증가율 잠정치를 발표한다.
한은이 지난달 29일 올해 성장률 전망
치를 기존 2.2%에서 2.0%로 하향 조정
한 가운데 3분기 국민소득 잠정치 결과
에 따라 연간 성장률 2% 달성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올해 3분기 국민소득 잠정치 발표에
서 관심사는 지난 10월 24일 발표된 3분
기 성장률 속보치(전기 대비 0.4%)보
다 더 오를지, 떨어질지 여부다.

추계 시 이용자료의 사정에 따라 속
보치와 잠정치가 소폭 달라질 수 있다.
올해 1분기와 2분기 성장률 잠정치는
각각 -0.4, 1.0%로 속보치 대비 각각 0.
1%포인트 하향 조정된 바 있다.

3분기 성장률 잠정치에 따라 올해 연



간 2% 성장 달성 가능성이 점쳐질 전망
이다.

앞서 한은은 지난달 말 ‘경제전망
(2019년 11월)’에서 올해 성장률을 2.2%
에서 2.0%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한은은 지난해 1월만 해도 올해 경제
성장률이 2.9%로 3%대에 가까울 것으
로 예측했지만 올해 들어 1월 2.6%, 4월
2.5%, 7월 2.2%로 잇따라 내렸다. 여기
에 추가로 0.2%포인트 낮춘 것이다.

기존 전망치에서 0.2%포인트 하향
조정됐지만 그래도 2% 선은 지킬 것이
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전망
치대로 2.0%를 기록할 경우 지난 2009
년(0.8%)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다.

그러나 올해 2.0% 성장률을 달성하
려면 3분기 성장률이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4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
97% 이상 돼야 한다는 점에서 2%대 성
장은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한은과 같이 올해 2.0% 성장률 달성
을 예상한 곳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
CD)와 국제통화기금(IMF), 한국개발
연구원(KDI) 등 정도다.

반면 대부분 연구원은 올해 성장률이
1%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LG
경제연구원은 1.8%로 내다봤고 한국경
제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한국금융
연구원,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등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제시했다.

/김희주 기자

윤석현 “DLF사태, 투자자·금융사 모두 피해”

(금융감독원장)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2일 ‘파생
결합펀드(DLF) 사태와 같이 취약한 소비
자 보호와 내부통제는 투자자와 금융회사
모두에게 큰 피해를 입힌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외국계 금융회사 대표들과 오
찬간담회를 갖고 “최근 우리 금융시장
이 DLF 사태로 혼란을 치르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뉴욕멜론은
행과 미즈호은행, 노무라금융투자 등 18
개 외국계 금융회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그는 “투자자의 재산상 손실은 물론
금융회사 입장에서 단기적인 이익을
쫓는 영업 관행이 결국 소비자 보호 약
화 및 투자자 신뢰를 손상시켜 금융회
사의 장기적인 성장을 해친다”고 설명



했다.

윤 원장은 “금융
원은 금융소비자들
의 신뢰 확보를 위
해 금융상품의 전
단계를 아우르는 감
독방안 마련 등 다

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외국계 금융
회사도 지속가능경영의 관점에서 금융소
비자와 함께 성장하는 경영모델을 뿌리
내려 달라”고 당부했다.

/안성미 기자 smn1@



소중한 사람에게 피로회복을 선물하세요!



대웅 우루사 연질캡슐 360캡슐 대용량 세트

팩트까지 생각한다면 역시 우루사입니다

팩트1

59년 전통의
국내 판매 1위 간장약

[2018년도 간장약 부문 IMS DATA 기준]

팩트2

임상에서 검증된
피로회복 효과

팩트3

임상에서 검증된
간수치개선 효과

[임상시험 결과 SCI급 국제임상저널 UCP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linical Practice) 2016년 3월호에 게재]

간 기능 장애에 의한 육체 피로, 온몸 권태에-

기준은 팩트! 선택은 우루사!



UDCA는?

- 간의 노폐물 및 독성물질의 담즙배설을 촉진
- 불규칙적인 생활로 지친 간을 보호
- 간내 혈류량을 증가시켜 신진대사를 높임. 비타민 B1, B2는 피로물질의 축적을 방지

광고상위권 2019-1480-002801

문의: **080-550-8308~9**
(약국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약다 남은 약, 약국이나 보건소에서 안전하게 수거해 드립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수출부진 속 내수도 정체... 월간 후판매 40만대 밑으로

11월 완성차 판매 동향

현대차 판매 전년동기비 2.8% ↓
 '신차 부재' 르노삼성, 15.3% 뚝
 쌍용차 17.5% ↓... 전월보단 ↑
 기아, 한국지엠은 글로벌 증가



현대차 더 뉴 그랜저



한국지엠 트래버스

국내 완성차 업계가 미중무역전쟁과 글로벌 경기 침체로 글로벌 판매량 하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완성차 5개사는 지난달 내수 실적은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감소세를 이어갔다. 다만 기아자동차와 한국지엠은 글로벌 판매량에서도 증가세를 기록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11월 국내 6만3160대, 해외 32만9087대 등 전년 동기대비 2.8% 감소한 39만 2247대를 판매했다. 국내 판매가 작년 같은 달보다 1.5% 줄었고, 해외는 3% 감소했다.

다만 최근 페이스리프트 모델 출시로 국내 세단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그랜저(하이브리드 모델 2312대 포함)가 1만407대 팔리며 국내 판매를 이끌었다. 뒤를 이어 쏘나타(하이브리드

드 모델 1203대 포함)가 8832대, 아반떼가 4475대 각각 판매했다.

현대차는 연말 세계 경제 성장 둔화와 통상 환경 악화 등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권역본부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소비자 지향적인 의사결정으로 실적을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기아차는 지난달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4만8615대, 해외 20만327대 등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한 24만8942대를 판매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국내 판매는 0.2% 감소, 해외 판매는 1.1% 증가한 수치다. 내수 시장에서는 소형 SUV 셀토스가 6136대를 기록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는 스포티지가 4만 541대로 가장 많이 판매했다. 기아차

는 이번 달 출시 예정인 3세대 K5가 지난주까지 사전계약 대수 약 1만 2000대를 기록하며 향후 판매실적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지엠은 신형 모델 트래버스와 콜로라도의 인기로 합쳐 글로벌 시장에서 3만 9317대를 판매했다.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수치다.

내수 시장에서는 쉐보레 스파크가 3162대가 판매되며 쉐보레의 베스트셀링 모델임을 입증했다. 또한 쉐보레 트렉스와 말리부 역시 내수 시장에서 각각 1048대와 775대 판매되며 전월 대비 7.9%, 7.2% 증가세를 나타냈다.

특히 이달 중순부터 고객 인도를 시작한 대형 SUV 트래버스는 영업일 기

준 약 열흘만에 322대, 픽업트럭 콜로라도는 한달간 472대가 판매했다.

한국지엠은 기존 모델과 함께 트래버스와 콜로라도의 합류로 향후 실적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신차부재로 고전중인 르노삼성은 지난달 1만5749대로 전년 동기 대비 15.3% 감소했다. QM6 판매가 5648대로 전년 동기 대비 50.7% 증가하며 2016년 출시 이후 처음으로 5000대를 넘어섰지만 신형 모델의 부재는 큰 아쉬움을 남겼다. 르노삼성은 내년 신형 모델인 XM3의 출시를 시작으로 글로벌 생산 판매에 반등을 예고하고 있다.

쌍용차는 지난달 글로벌 시장에서 1

만 754대의 완성차를 판매했다. 전년 동기 대비 17.5% 감소한 수치다. 다만 10월에 비해서는 전체 판매가 6.1% 증가하며 회복세를 나타냈다. 내수 시장에서는 지난 5월(1만106대) 이후 6개월만에 9000대 판매를 넘어섰으며 회복 가능성을 나타냈다. 내수 시장 판매는 전월 대비 14.9% 증가했다.

차종별로는 티볼리와 렉스턴 스포츠가 각각 전월 대비 8.7%, 12.1% 증가했다. 코란도는 가솔린 모델 출시와 함께 지난 8월 이후 3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15.9%, 전년 동기 대비 400%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코트라가 2일 서울 영곡동 본사에서 '2020 무역투자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해외 지역본부장 10명과 지방지원단장 12명 등 KOTRA 국내·외 현장 조직 책임자가 총집결했다. 권평오 코트라 사장(앞줄 왼쪽 일곱번째)은 "녹록지 않은 수출 환경을 감안해 KOTRA가 최전선에서 해결에 앞장선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코트라

"내년 통상갈등 속 수출증가 반전 최선"

코트라 '2020 무역투자전략회의' 권평오 사장, 글로벌 변화 선제 대응

KOTRA(코트라)가 국내 기업들의 수출 물량 확대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

코트라는 2일 서울 영곡동 본사에서 '2020 무역투자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해외지역본부장 10명과 지방지원단장 12명 등 코트라 국내·외 현장 조직 책임자가 총집결했다.

권평오 코트라 사장은 "올해는 연초부터 '수출 10% 더하기 운동'을 비롯해 수출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였지만 글로벌시장 여건 악화와 주력품목 미흡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내년에도 미중 통상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불확실성과 함께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예상된다"며 "녹록지 않은 수출 환경을 감안해 코트라가 최전선에서 해결에 앞장선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코트라는 ▲수출 재도약 총력지원 ▲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대응 ▲해외진출 지원체계 혁신 등으로 우리 기업 수출 활력을 제고하고 국가 무역투자 확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중국·아세안 등 글로벌가치사슬(GVC) 재편 움직임,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 4차산업혁명 확산 등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2020년에는 전년도 수출 기저효과를 바탕으로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주력 품목과 2차전지, 바이오, 화장품 등 신 성장품목 수출 확대도 기대되고 있다. 코트라는 내년에 산업·지역별 맞춤형 사업을 통해 수출 성과제고에 적극 나선다.

권평오 코트라 사장은 "새해에도 글로벌 통상갈등 지속과 소비 위축이 예상된다"며 "국내외 현장에서 발빠른 대응과 서비스 혁신을 통해 2020년 수출 플러스 전환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리니지2M, 리니지M 제치고 매출 1위

형보다 잘난 동생... 밀레니얼세대도 품는다

초고화질 3차원 그래픽 탑재에 퍼플 통해 PC로 이어 게임 가능 심해진 과금 유도에 고객 불만도

'리니지' 형제가 나란히 최고 매출 1·2위 왕좌를 차지하며 게임업계 판을 흔들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기존 매출 강자 리니지M과 함께 그래픽을 강화한 리니지2M으로 젊은 세대까지 아우르겠다는 전략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의 신작 모바일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리니지2M'이 출시 나올 만인 지난 1일 구글 플레이스토어 매출 1위에 올랐다. 특히 리니지2M은 전작인 '리니지M'을 제치며 '형 만한 아우 없다'는 공식도 깨고 있다.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출시 당일인 9시간 만에 매출 1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2017년 6월 출시 이후 현재까지 구글 플레이 최고 매출 1위 자리를 내려놓지 않았던 리니지M의 아성을 감안하면, 눈에 띄는 성적이다. 구글플레이 최고 매출 순위는 게임의 장기 흥행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로 여겨지기도 한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는 "리니지2M은 향후 몇 년 간 기술적으로 따라올 수 없는 게임"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친 바 있다. 총 130개 서버로 서비스를 시작한 리니지2M은 출시 직전 최종 사전 예약 738만명을 달성하며, 국내 최다 사전 예약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증권사 등에 따르면, 리니지2M의 3·4분기 일매출은 30억~40억원으로 추정된다. 리니지M의 매출까지 합하면 수백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릴 것으로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지난 9월 열린 '리니지2M' 미디어 쇼케이스에서 키노트 발표를 하고 있다. /엔씨소프트

예상된다.

리니지2M은 2억4000만㎡(약 7300만 평)로 여의도 면적(290㎡)의 약 83배에 달하는 가상세계를 구현했다. 초고화질(UHD) 3차원 그래픽도 탑재했다. 크로스 플랫폼 서비스 '퍼플'을 통해 모바일 게임을 PC로 이어할 수 있는 점도 강점이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리니지2M은 MMORPG 본연의 재미를 지키면서 최고의 그래픽과 완성도 높은 콘텐츠를 구현했다는 점이 호응을 얻고 있다"며 "출시 초기인만큼 안정적인 서비스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리니지2M 이용자들은 "새롭고 재밌다", "게임의 완성도가 눈에 띈다", "3D와 그래픽이 돋보인다" 등의 평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리니지 형제의 장기 흥행에 두 게임의 카니발리제이션(자기 잠식)이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같은 '리니지'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게임이기 때문에 핵심 유저들이 풀이 겹칠 것이라는 우려에서도.

다만, 아직까지 엔씨소프트와 업계에서는 자기 잠식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엔씨소프트는 리니지2M은 12세 이용가도 따로 서비스되는 만큼 초고화질 3D 그래픽 등 비주얼 측면에서 리니지M 보다 좀 더 젊은 세대가 즐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과거 '리니지 1'과 '리니지 2' 같이 두 게임은 게임성 자체가 달라 리니지 이용자 층을 넓힐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부 이용자들이 과금유도가 심하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과금 체계가 이용자들의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논란으로 떠오른 부분은 클래스(직업) 뽑기다. 직업에 과금 요소를 도입한 것은 리니지2M이 처음이다.

일부 이용자들은 "이렇게 과금을 하게 할 거면 차라리 전면 유료화를 하라", "클래스(직업)도 돈을 주고 얻어야 하는 것은 심하다"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

유니클로 이어 데상트도... 'No 재팬'에 투자·채용 올스톱

컬래버레이션, 매장개설 등 취소
국내 물류센터 제3동 건설 보류
“3분기 매출 전년비 30% 줄어”



유니클로 매장



유니클로 매장 내부

/손진영 기자 son@

패션업계에 불어닥친 불매운동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다. 최근 10년간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던 데상트코리아는 하반기에 계획했던 업무에 급제동이 걸린 상태이며, '히트텍 무료 증정 행사'와 '겨울감사제'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친 유니클로 역시 소비자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다.

데상트코리아는 최근 3개월간 매출 급락을 겪고 있다. 백화점과 대리점 상황을 미뤄봤을 때 불매운동이 본격화된 7월부터 약 40% 가까이 매출이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2000년 국내 시장에 진출한 데상트코리아는 데상트, 데상트골프, 르죄크스포르티브, 엄브로 등을 라이선스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0년(2009년부터 2018년) 동안 꾸준

히 성장세(최소 0.24%~최대 31.34% 전년비 신장률)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장기화되면서 성장에 급제동이 걸린 상황. 실제로 올해 3분기는 전년 대비 26% 하락세를 보였다.

데상트코리아는 하반기에 진행하려 했던 다양한 컬래버레이션을 비롯해 새로운 매장 개설 계획을 대부분 취소하거나 보류했다. 회사 내부적으로는 국내 물류센터 제3동 건설을 보류했으며, 매년 진행하던 신입공채도 중단했다.

고세키 슈이치 데상트 사장은 “7~9월 한국에서의 매출이 전년 대비 30% 줄었다”며 “상당히 심각한 매출 감소다”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매출 회복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불매운동과 함께 데상트코리아를 둘러싼 잡음도 상당했다. 앞서 ‘한국에서 거둔 이익의 대부분이 일본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온라인상에 퍼진 것. 이에 대해 데상트코리아 측은 “배당금은

업계 평균 수준인 10% 정도”라며 “수익 대부분은 물류센터와 R&D 센터 설립 등 한국에 재투자하는 데에 쓰인다”고 밝혔다. 이어 “불매 운동으로 인한 현재 상황이 안타까운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타개할 계획은 따로 없다”고 전했다.

반면, 유니클로는 앞서 발열내의인 히트텍을 무료로 증정하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다. 하지만, 매출 회복에는 오히려 역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더블어민주장 박광은 의원이 국내 8개 전업 카드사(삼성·신한·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의 신용카드 매출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유니클로의 지난달 15~20일 신용카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9.6% 감소한 95억 원으로 나타났다. 20일까지의 전체 월 매출도 64.5% 줄어든 206억 원에 그쳤다. 히트텍 무료 증정 행사가 진행된 15~20일 매출액이 가장 많이 급감한 것이다. 일부 오프라인 매장에 사람이 몰리면서 일본 불매운동이 사그라들었다는 이야기가 오르내렸지만, 실제로는 아니었던 것.

업계에서는 여름 동안 불매운동 이슈에 조용한 행보를 견딘 유니클로가 성수기인 겨울을 맞아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면서 오히려 반감을 산 것이라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전례없던 증정 행사에 일부 고객들의 발걸음을 돌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더 많은 소비자들이 반감을 굳혔다는 것이다.

/신원성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CJ로킨이 중국 우수 물류기업과 물류혁신기업에 선정됐다. 윈난성 쿤밍에서 열린 '제 17회 중국 물류기업가 연례회의' 시상식에서 CJ로킨과 다른 수상기업 대표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CJ대한통운

CJ대한통운, 자회사 통해 中서 물류 호평

CJ로킨, 中 연례회사 2개 부문 수상

CJ대한통운이 자회사를 통해 중국 시장에서 물류 혁신 기술에 대해 호평 받고 있다.

CJ대한통운은 CJ로킨이 '제 17회 중국 물류기업가 연례회의'에서 '2019 중국 우수물류기업'과 '2019 중국 물류혁신' 두 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CJ로킨은 물류공급망과 고객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으며 맞춤형 SCM 전략 컨설팅 솔루션과 CJ대한

통운 고유의 첨단 TES(Technology, Engineering, System&Solution) 물류 기술 역량을 중국 현실에 맞게 최적화함으로써 고객에게 최적의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아울러 최근 TES 핵심 기술 등 스마트 물류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강소성 타이창, 산둥성 린이등에 대규모 지능형 물류센터 건설하는 등 중국 물류 산업계에서 첨단화, 지능화의 외연을 확장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았다. /김승호 기자 bada@

넥슨, 네코제 누적관람객 1.3만명 기록

넥슨은 지난 11월 30일과 12월 1일 이틀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사옥에서 개최한 여덟 번째 네코제(넥슨콘텐츠축제)가 누적 관람객 1만3000명을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네코제8에는 만화·소설, 개인상점, 코스튬 플레이, 아트워크 등 네 개 분야에 99개 팀 151명의 유져 아티스트가 참가했다.

또, 마비노기, 마비노기 영웅전, 메이플스토리, 엘소드, 천애명월도, 클로저스, 테일즈위버, 메이플스토리M 등 8개 팀도 부스를 꾸려 관람객을 맞았다. 홍보실 직원들로 구성된 판교 베틀시장 팀이 만든 티셔츠 200장은 행사 시작 5

시간 만에 완판됐다. 특히, 신규 던전 등 겨울 업데이트 단서가 담긴 쪽지를 공개한 마비노기 부스를 비롯해 메이플스토리 속 세계를 그대로 옮긴 듯한 핑크빈 하우스와 예티 더 카페(CAFE)는 1시간이 넘는 입장 대기열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하고 사내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넥슨포럼이 협업한 원데이클래스는 엘소드·메이플스토리 아토토이 등 2차 창작 과정과 클로저스 김하루 성우와 함께 실제 게임 대사를 녹음하는 체험 과정으로 진행됐다. /김나민 기자 silkni@

스타트업 참여하니 분리배출 수거율 68%↑

오늘의 분리수거, IoT방식 솔루션 앱으로 잘못된 분리수거 방식 개선

우리나라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참여율은 세계 2위에 달한다. 그럼에도 환경부에 따르면 종량제봉투 폐기물의 53.7%가 분리배출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종이·플라스틱·금속 등이다. 분리수거된 물품의 80%는 잔재 폐기물 처리되기도 한다. 이처럼 골치 아픈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를 스타트업들이 해결하기 시작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오이스터에이블·수퍼빈 등 재활용 쓰레기 문제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나선 스타트업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오늘의 분리수거’는 오이스터에이블이 만든 사물인터넷(IoT)방식의 분



수퍼빈의 AI 재활용 자판기 '네프론' /수퍼빈 홈페이지



오이스터에이블의 스마트 IoT 분리수거함 'WeBin'과 모바일 앱 '오늘의 분리수거' /오늘의 분리수거 홈페이지

리수거 솔루션이다. 오늘의분리수거는 스마트 IoT 분리수거함과 모바일 앱을 이용해 잘못된 분리수거 방식을 개선하고 보상을 제공한다. IoT 분리수거함 '위빈(WeBin)'에서 모바일앱의 사용자 QR코드와 분리수거 물품의 바코드를 스캔한 뒤 쓰레기를 넣으면 포인트 등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포인트로 제휴처에서 할인 받거나 앱 내 채널에서 직접 소핑할 수 있다. 위빈에 모인 재활용품은 설치장소와 지자체 협의로 회수처를 정한다.

아파트 주거단지·관공서·주민센터·대형마트 등 전국 다양한 장소에서 182대의 위빈이 분리수거 물품을 수집하고 있다. 오이스터에이블은 오늘의분리수거 솔루션으로 시민 참여를 촉진해 분

리 배출 수거율을 68% 증대했다. 오이스터에이블은 오늘의 분리수거 솔루션으로 분리배출 양이나 회수 시기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 관리효율이 높아진다고 설명한다.

오늘의 분리수거가 바코드로 각 물품을 구분한다면 수퍼빈은 AI로 분리수거 물품을 직접 구분한다. 수퍼빈의 AI 재활용 자판기 '네프론'은 분리배출된 물건을 스스로 인식해 보상까지 제공하는 기계다.

깨끗한 분리수거 물품을 수퍼빈 자판기에 넣으면 AI 물품을 인식한 뒤 거기에 맞는 포인트를 제공한다. 인공지능 기반 선별과 폐기물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물품이 관리되며, 수거된 물품은 네프론이 알맞은 형태로 압착 및 수거한다. 행사·축제·페스티벌 등 단기적으로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 대역할 할 수 있는 이동형 네프론인 수퍼큐브도 있다. 현재 약 75대의 네프론이 전국에서 쓰레기를 모으고 있다. 네프론 한 대가 캔과 페트병은 3000개, 빈 병은 200개까지 저장할 수 있다.

수퍼빈은 단순히 리워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재활용도 높이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퍼뜨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배한민 기자 ericabae1683@

“네이버 앱으로 국민연금 신청·납부하세요”

네이버(주)-국민연금공단, 업무협약

네이버(주)는 11월 29일 국민연금공단과 모바일 전자 고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MOU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MOU를 통해 양사는 ▲네이버 플랫폼에서 다양한 국민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네이버 앱을 통해 국민

연금 신청부터 신고, 모바일 납부까지 한 번에 가능하게 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양사는 2020년 3월 중 모바일 네이버 기반의 연금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MOU는 네이버가 지난 11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IC

T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 받은 이후, 이를 활용해 체결하는 첫 MOU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네이버는 올해 공인전자문서증거자 지정되고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규제 샌드박스로 승인 받아, 한층 다양한 기관에서 발송하는 통지서 및 고지서를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됐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에듀 단신

종로학원

5일 정시지원전략 설명회

대학입시전문 교육기관 종로학원은 4일 수능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이튿날인 5일 오후 2시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종로학원 2020정시지원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어 이달 11일까지 인천, 분당, 일산, 평촌, 수원, 세종, 대전, 대구, 광주, 부산에서 잇따라 설명회를 진행한다. 설명회에서는 수능 실재점 결과 ▲올해 학생 수 5만명 감소에 따른 정시 합격점수 하락폭 정밀분석 ▲대학별 지원가능점수 확정 발표 등을 공개한다. 참가신청은 종로학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온라인 사전예약 후 참석자에 한해 현장 온라인 정시예측프로그램 등 입시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제공한다.

웅진책방 '영유아 발달 전집'

'웅진 베이비 오감튼튼'

웅진씽크빅은 어린이 도서 전문 온라인몰 웅진책방이 영유아 통합 발달 전집 '웅진 베이비 오감튼튼(사진)'을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웅진 베이비 오감튼튼은 신생아부터 36개월까지 유아 월령별 성장 과정을 총 5단계로 나눠, 각 단계마다 아이의 오감과 감각·신체·언어·인지·사회정서 5대 성장 발달 영역을 고루 발달 시키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교원구문

영유아 두뇌 발달 '브레인 쪽쪽'

교원그룹의 개인·능력별 학습지 교원구문이 만 4~6세 유아들의 종합적인 두뇌 발달을 돕는 영유아 대상 교육 프로그램 '브레인 쪽쪽'을 새롭게 선보인다.

브레인 쪽쪽은 교원구문의 교육 노하우가 집약된 영유아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다. ▲창의사고력 ▲Activity Skill ▲운필 조작력 3종의 스펙트럼식 워크북과 월 1회 구문선생님이 방문수업으로 구성된다.

특히 가정에서 홈스쿨링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매번 학습관리판을 제공한다. 과제를 해결할 때마다 스티커를 붙이고 모든 과제를 해결하면, 상장을 부여해 아이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천재교육

에듀테크센터 입주기업 모집

천재교육은 오는 20일까지 천재교육의 창업보육센터 '에듀테크센터'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에듀테크센터는 천재교육이 2015년 교육업계 최초로 만든 스타트업 창업보육센터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테크놀로지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육성 및 발굴을 통한 에듀테크 서비스 발전을 목표로 설립됐다.

입주 대상자는 예비 창업자를 포함한 창업 3년 이내의 AI, AR, VR, 블록체인을 비롯한 IoT 및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이며, 입주기업에게는 사무 공간 무상 지원, 경영 및 마케팅 멘토링, 투자유치 및 사업화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한용수 기자

고교 캠퍼스 공유... 타학교서 수업 듣는다

서울시교육청 '고교학점제'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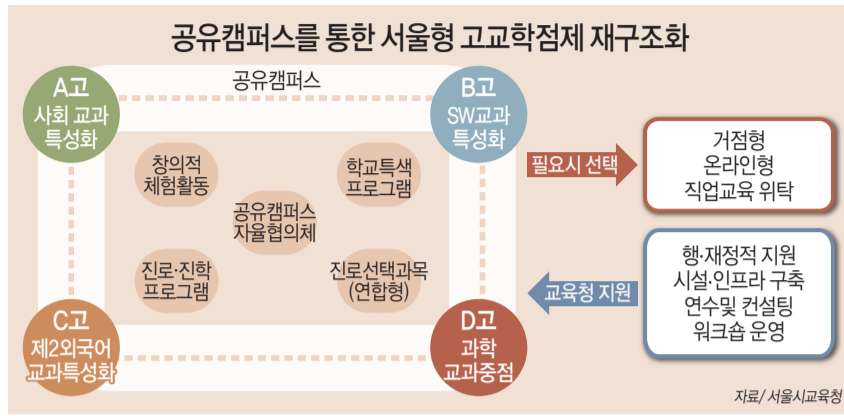
내년부터 3~4곳서 시범운영
2025년 고교학점제 안착 유도

서울시교육청이 2025년에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내년 서울 고교 3~4곳을 공유캠퍼스로 시범 운영하고 2024년까지 모든 자치구에 1곳 이상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모든 일반고 학생의 실질적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단위학교별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 간 연대와 인적·물적 자원 공유를 통한 동반 성장으로 학교의 교육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공유캠퍼스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유캠퍼스는 권역 내 이웃 학교를 각기 다른 교과와 교과특성화학교로 지정·운영해, 인근 학교의 학생들이 본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 중 자신이 원하는 과목이 개설된 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 수업을 수강토록 함으로써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도 단위학교 내 개방형 선택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과목 희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은 있



었으나 편성 및 운영상 단위학교의 인적·물적 한계가 있었다. 또 학교 간 협력교육과정은 주로 방과후나 주말을 이용해 운영되는 등 전체 일반고에 확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달리 공유캠퍼스는 단위학교별 학생 희망 과목을 모두 개설해야 하는 피로도를 줄이고, 정규수업시간에 수업을 진행해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유캠퍼스 확대를 위해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공유캠퍼스를 운영하면 기존에 일반학교에 지원되던 일반고 전성시대 운영비와 소인수과목 감사비 외에 교과특성화학교 운영비, 학교 간 협력 교육과정 운영비, 공유캠퍼스 운영비 등을 추가해 학교당 평균 1억70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전임요청 대상 인원을

추가하거나 교과특성화 관련 전공교사 배치 시 학교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각종 시설 개선 사업에 공유캠퍼스 운영교를 우선 추천하기로 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공유캠퍼스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학교가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학교 간 교육과정 연계 강화를 통해 교육과정의 수평적 다양화와 모두를 위한 수월성 교육(Excellence for all)을 보편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웃 학교 간 자율협의체 단위로 공모해 2020년 3~4개 캠퍼스를 시범 운영하고 2024년까지 25개 자치구별 1곳 이상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공모와 심사를 거쳐 오는 13일까지 운영 권역을 지정할 계획이며, 내년 3월에는 실제 운영 상황을 지

속 모니터링하고 공개할 예정이다.

공유캠퍼스 도입은 2025학년도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한 것이지만, 최근 교육부의 정시모집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형 확대 방향이 결집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교육부는 앞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서울 소재 16개 대학의 수능전형 비율을 40% 이상으로 권고하기로 했다. 수시모집 이월인원까지 감안하면 20% 수준으로 떨어졌던 수능전형 비율이 절반수준으로 확대되 사실상 대입 주요 전형으로 자리잡게 된다.

수능이 대입 주력 전형이 되면, 수능에 특화된 수능 사교육 확대가 예상된다. 학교 수업 또한 수능 시험에 유리한 과목으로 재편되고 학생들도 고교학점제에 따라 듣고 싶은 교과목을 수강하기 보다는 자신의 수능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교육계 관계자는 "수능 전형이 대세 전형으로 확대될 경우 학생들이 수강을 원하는 과목을 듣기보다 대입을 위해 도움이 되는 과목 수강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고교 교육과 대입의 방향이 서로 엇박자를 낼 가능성이 커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교육부, 수능 성적유출 인정

평가원 홈페이지 보안 도마

수험생이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 발표를 이틀 앞두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취약점을 이용해 미리 확인한 사태가 공식 확인됐다. 정시 확대를 앞둔 가운데 수능 성적이 사전 유출되면서 관리부실 문제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일부 수험생이 성적을 미리 확인한 상황을 인지한 후 2일 오전 1시 33분 관련 서비스를 차단했으며,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예정대로 4일 오전 9시부터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태는 1일 한 수험생 커뮤니티 사이트에 "수능 성적표를 미리 발급받았다"고 인증한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글을 게시한 작성자가 웹 브라우저의 개발자 도구 기능을 이용해 클리

몇 번 만에 가능하다고 설명한 후 이를 따라한 수험생들이 이어졌다. 성적을 확인한 수험생들이 가채점 결과와 별다른 차이가 없어서 실제 성적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고 게시하자 순식간에 확산됐다.

이달 1일 저녁 9시 56분부터 2일 오전 1시 32분 사이 졸업생 312명이 수능 성적증명서 발급 서비스에 본인 인증 후 소스코드에 접속해 2020학년도로 변경 후 본인의 성적을 사전 조회하고 출력했다. 기존 2019학년도를 2020학년도로 변경한 후 성적을 조회할 수 있어 재학생이 아니라 졸업생만 성적 조회가 가능했다.

이는 해당 서비스의 소스코드 취약점을 이용한 것이다. 해당년도의 파라미터값을 '2020'으로만 간단히 변경하면 조회가 가능한 만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손현경 기자 son89@



인천대는 연수구 4차 산업혁명청년창업지원센터 개소식 테이프커팅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대

인천대 4차산업혁명 '청년창업지원센터' 열어

인천대는 최근 '연수구 4차산업혁명 청년창업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개소식 및 창업포럼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경과보고, 입주기업 협약서 전달, 축하공연 순서로 진행됐으며 창업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는 뜻 깊은 장이 됐다.

먼저, 행사는 '청년 스타트업의 성공전략'이란 주제로 창업포럼을 열고 4차산업혁명과 청년창업, 청년의 꿈을 이루는 스타트업, 사업아이템을 찾기 위한 6번의 도전, 창업실패에서 마음을 지키는 방법 등 선배 창업인들의 경험담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열렸다.

/손현경 기자

블라인드 채용에도 대기업 신입스펙 '쑥'

평균 학점 3.7점, 토익 836점

블라인드, AI(인공지능) 채용 등 스펙초월 채용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지만, 올해 기업 신입사원들의 합격스펙은 전년보다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무 경험을 드러낼 수 있는 인턴십 경험자가 가장 많이 증가했고, 자격증 보유자, 해외체류 경험자 증가도 눈에 띈다.

2일 잡코리아가 1000대 기업에 입사한 신입사원 1256명의 합격스펙을 분석한 결과, 졸업학점은 평균 3.7

(4.5만점)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과 같은 수준이다. 하지만 졸업학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취업스펙이 전년보다 소폭 높아졌다.

먼저 신입사원 중 자격증 보유자는 73.7%에 달했다. 10명 중 7명이 직무 자격증이나 컴퓨터활용능력 등의 자격을 보유했다. 토익 점수는 평균 836점으로 전년(평균 702점)보다 크게 높아졌다. 영어 말하기 점수 보유자(61.8%←63.2%)는 소폭 줄었지만, 제2외국어 점수 보유자(16.6%←12.1%)는 소폭 증가했다.

/한용수 기자

교총 등 17 단체 "만 18세 선거법 반대"

선거법 개정 중단 기자회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2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고3까지 정치관 참여하는 만 18세 선거법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단순히 선거연령만 한 살

낮추는 게 아니라, 만 18세 고3에게 선거권을 주고 선거운동과 정치활동까지 허용하는 법안인데도 아무 대책도 없이 졸속 처리한다면 교실 정치장화는 불 보듯 뻔하다"며 "정치적 유불리만 따져 학생들을 오염된 선거판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에 결단코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한용수 기자

www.pdna.co.kr

더 완벽해진 피디엔에이
동안피부를 위한
연어DNA 3배 강화*
P+DNA

* 기존 자사제품 대비

연어케어의
 원료성분
 sodium DNA



기대해보세요, 14일 후의 피부
 청정 연어에서 추출한 DNA 3000ppm 함유

- 기존 자사제품 대비 sodium DNA 함유량이 3배 더 강화되었습니다.
- 단백질 펩타이드, 프랑스 보르필린 등 차세대 프리미엄 원료를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 세라마이드 복합체, 발효추출물이 촉촉하게 빛나는 피부, 힘있는 피부로 바꿔줍니다.

어린 피부를 위한 DNA 과학

청정 연어 DNA 물광피부 항노화 효과	탄력보습 펩타이드 -1-7-8 단백질 복합체	주름개선 아데노신 주름개선기능성	스킨피밍 프랑스 세더마틴 보르필린	피부장벽 강화 세라마이드 복합체 건강한 피부지질회복



5가지 항산화 항노화 추출물

발효콩 항산화 영양소 이소플라본 함유	발효 겨우살이 매끄럽고 빛나는 피부결	발효 띠뿌리 식물성 에스트로겐 진정효과	병풀 추출물 피부 진정 피부영양강화	눈연꽃 추출물 피부 보호 및 영양 피부 톤업

P+DNA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인텐시브 DNA 세럼&크림

구입문의 고객상담센터 **070-4870-0708**



이대훈 NH농협은행장, 구세군에 성금 전달 NH농협은행은 이대훈 행장이 서울 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풍산 본사에서 진행된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행사에 참석해 성금을 전달했다. 이대훈 NH농협은행장(왼쪽부터)과 필립포르 주한프랑스대사, 김필수 구세군 한국군국사령관, 박우동 풍산 대표이사, 서울 서대문구 풍산 본사에서 진행된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행사에서 성금을 전달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농협은행

프랜차이즈를 M&A하는 기업의 장점



이상연 **실패하지 않는 창업전략**

프랜차이즈 M&A에서 사용되는 브랜드 인수와 합병은 많은 차이가 있다.

브랜드 인수는 한 브랜드가 다른 브랜드를 구매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그 결과 A브랜드 B브랜드를 지배하지만 A브랜드 본사는 본사대로, B브랜드 본사는 본사대로 존재하는 운영형태다. 프랜차이즈 브랜드 합병은 합병하려는 A브랜드와 합병의 대상이 되는 B브랜드가 합쳐져서 하나의 회사가 되는 구조를 의미한다. 따라서 A와 B가 합쳐서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으며 전혀 다른 C가 될 수도 있는 방식이 합병방식이다.

프랜차이즈 브랜드 M&A를 기업의 전략적 성장 수단으로 결정하고 집행할 경우 실행하는 회사에 결과적으로 득이 될 수도 득이 될 수도 없다. 브랜드 M&A는 기업들이 투자하는 한 방법이고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많은 수단과 방법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즉 기업들은 선택의 문제이지, 필수로 실행해야하는 전략적 선택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프랜차이즈 본사나 타 업종의 기업들이 프랜차이즈 브랜드 M&A를 현재 운영중인 기업이나 브랜드의 상황변화를 위한 해결책이나 기업의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진행한다. 그 이유는 M&A의 태생적 사업은 신사업투자에 비해

상당히 강력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기업의 경우 M&A가 잘만 성사되면 경영진은 효과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기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프랜차이즈 M&A를 실시하는 장점요소는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1. 프랜차이즈 브랜드 M&A는 신사업투자에 비해 빠르고 손쉽게 신규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브랜드 M&A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1, 2브랜드의 성장동력이 하락하는 시점에 신규브랜드를 기획하거나 준비한다. 하지만 신규브랜드에 대한 성장확률이 높지 않으므로 인해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기업환경이다. 이때 브랜드 M&A는 기존 운영중인 브랜드를 인수함으로써 기존 운영중인 브랜드를 인수함으로써 가맹점, 고객, 노하우, 상품, 기술, 상표권 등 모든 유무형 자산을 귀속시킬 수 있다.

2. 소비자 경쟁시장에서 경쟁강도를 유지, 상승시킬 수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새로운 사업으로의 진출을 위해 신규브랜드의 개발과 운영으로 새로운 시장에 대한 도전한다면 그 사업의 진입을 통한 관련시장의 경쟁은 가중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기존시장에서의 경쟁은 불가피할 것이다. 즉 기존시장의 공급가격, 공급량, 공급브랜드의 확대를 통해 소비자나 수요기업의 접근과 만족의 변화가 당연한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3. 빠른 시장의 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투자의 성패를 판단하는 기준은 시장환경의 변화로 볼 수 있다. 관련 아이템의 소비시장이 가장 좋을

때 가장 많은 이윤과 함께 브랜드의 질적, 양적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 모든 기업이 현재 경기상황상 성장기초에 있다고 지속적 경기성장의 판단에 따라 많은 자금과 시간, 인력을 투자하여 신규 사업에 진출시 우려되는 리스크범위는 상당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좀더 안정적인 이미 형성되어있는 소비시장에 브랜드 M&A를 통해 진입하려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4. 브랜드 M&A를 통해 기술습득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오늘날 세계적인 기업인 구글과 외식 글로벌 기업인 얀(YUM)은 M&A를 통해 성장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구글의 경우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작은 벤처기업부터 하이테크 기업까지 약 170개가 넘는 기업을 인수, 합병을 추진, 기업의 세계적인 IT대표 기업이 됐다. 얀은 KF C브랜드에서 피자헛, 타코벨, 햄버거 브랜드, 해산문전문점 등 세계 120개국에 약 4만개의 점포를 보유한 글로벌 회사로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신사업에 직접 진출하는 전략과 브랜드 M&A 전략 중 어느 방식이 우수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모든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경쟁력, 재무여건 그리고 조직력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의 국내 프랜차이즈 환경상 신규 브랜드 기획보다는 시너지가 가능한 브랜드에 대한 전략적 M&A 방식이 리스크를 줄이고 성장의 동력을 탑재하는 방식임에는 틀림없다.

/프랜차이즈 M&A 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장 (권설범 박사)

BMW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신임대표 제임스 오스키

BMW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가 12월 1일부로 신임 대표이사에 제임스 오스키(사진)를 선임했다.



MW 파이낸셜 서비스 캐나다, 한국, 일본 등에서 최고재무관리자(CFO) 역할을 수행했고, 최근까지 BMW 오토모티브 파이낸셜 차이나에서 최고리스크 관리책임자(CRO)와 최고재무관리자(CFO)를 역임했다. /양성운 기자 ysw@

신임 대표이사로 임명된 제임스 오스키는 미국 오하이오 출신으로, 세계 4대 회계법인 중 하나인 KPMG를 거쳐 1995년 북미 지역 BMW 파이낸셜 서비스에 입사해 금융관리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았다. 이후 B



“정관장, 알파프로젝트와 상담하세요” KGC인삼공사는 2일 서울 중구 충무로 한국의 집에서 연말 바쁜 현대인에게 8가지(수면, 간, 눈, 구강, 위, 장, 관절, 혈행) 건강이슈에 대한 스마트 솔루션을 지원하는 ‘정관장, 알파프로젝트 캠페인’을 진행했다. /KGC인삼공사



SPC-동반위,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 SPC그룹은 2일 동반성장위원회와 함께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선순환적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SPC그룹 계열사 파리크라상과 SPC삼립이 동참했다. 김충훈 트레이드 인터내셔널 대표(왼쪽부터), 이명구 SPC삼립 대표이사,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이종희 파리크라스 가맹점주협의회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SPC그룹

우리금융, 소외계층에 1.5억 기부금 전달

‘우리사랑기금 공모사업’ 성료

우리금융그룹은 ‘소외계층 따뜻한 겨울나기’를 주제로 우수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는 ‘우리사랑기금 공모사업’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2일 밝혔다. 우리금융그룹은 선정된 20개 복지기관에 총 1억5000만원의 기부금을 지원했다.

우리사랑기금 공모사업은 우리금융그룹 임직원이 매월 급여의 일부를 자발적으로 기부해 조성한 우리사랑기금 1억5000만원과 온라인 기부 플랫폼에서 추가 모금한 후원금으로 진행됐다. 추가 모금은 지난달 13일부터 해피빈, 같이가치 등의 기부 플랫폼에서 ‘소외계층 따뜻한 겨울나기’를 주제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오른쪽 첫번째)은 지난달 25일 임직원과 함께 겨울용품 포장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해당용품은 아동복지기관으로 전달됐다. /우리금융그룹

진행됐으며, 많은 사람의 참여와 관심으로 목표액을 조기 달성했다.

특히 이번 공모사업의 하나로 지난달 25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임직

원들과 서울시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아동복지기관에 기부될 겨울이불과 방한용품 포장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홍민경 기자 hong93@metroseoul.co.kr

인사

- ◆외교부 ◇ 대사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윤순구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상공인지원과정 서기관 박은주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기술서관 박선국
- ◆대보그룹 ◇ 대보그룹 △기획조정실 사장 이종일 ◇ 대보건설 △이사 김남용 안현후 이준석 △이사대우 임용규 정병용 이민문 ◇ 대보정보통신 △이사 조성현 △이사대우 장호식
- ◆호반그룹 ◇ 승진·선임 △총괄부회장 최승남 (호반건설) ◇ 선임 △대표이사 부회장 최승남 ◇ 승진 △상무 김은정 △상무부 홍성표

- 조동 허권일 김성제 △상무부B 박상욱 (호반산업) ◇ 승진 △대표이사 사장 김진원 △상무부 김재용 (호반호텔&리조트) ◇ 선임 △대표이사 장해석 ◇ 승진 △상무 노충종 (대아청과) ◇ 선임 △대표이사 박재욱 △상무 김기영·이상용·박준홍 (호반골프개발) ◇ 선임 △상무 최원근(코스관리 총괄) △상무 박궁석(서서울CC 총지배인) ◇ 승진 △상무 김석진(스카이밸리CC 총지배인) △상무 권남정(덕평CC 총지배인) (코너스투트자파트너스) ◇ 승진 △대표이사 상무 김철희
- ◆한화중합화학 (임원 승진) ◇ 전무 △인재 ◇ 상무부 △안상수 △이건학
- ◆한화에너지 ◇ 상무 △김창수 ◇ 상무부 △박중규

- ◆코리아타임스 △편집인 오영진 △경영기획 본부장 조재현
- ◆라이나생명 ◇ 신규 임원 선임 △신사업개발본부 김병준 상무
- ◆ABL생명 ◇ 승진 △서부지역담당 배지훈 △대구지역담당 최영성 △광주지역담당 우상봉 △제주지역담당 박경도 △중부BA사업단장 편시윤 △영남BA사업단장 김형규 ◇ 전보 △FC관리부장 임명기 △경기지역담당 박홍 △동부지역담당 한용희 △소비자부장 김현직
- ◆한화손해보험 ◇ 임원 전보 △전략기획실장 강창완 △경영지원실장 정의봉 △업무지원실장 김영준 △개인영업부부장 도만규 △기업영업부부장 성시영 △인사팀장 장창섭 △기획관리팀장 김승균 △변화혁신팀장 권양훈 △장기

- 보험팀장 안광진 △일반보험팀장 최용민 △SIU팀장 김석남 △개인영업지원팀장 우용호 △소비자보호팀장 직무대행 하진안 △서울지역본부장 최기진 △경기지역본부장 여상훈 △신채널사업본부장 서지훈 △기업영업본부장 이재우 ◇ 팀장·본부장 전보 △자산운용본부장 손두호 △충청지역본부장 이명수 △투자전략팀장 임현빈 △영업컨설팅팀장 박찬량 ◇ 부서장 전보 △서울지역본부 마케팅파트장 이택기
- ◆한화케미칼·한화토탈 (한화케미칼) ◇ 부서장 승진 △김형준 ◇ 상무 승진 △양기원 △조병남 ◇ 상무부 승진 △김태형 △순인원 △이상일 △이석찬 △임상일 (한화토탈) ◇ 상무 승진 △유병창 ◇ 상무부 승진 △임재곤 △김홍일 △송현 △박재욱 △김명현 △신남철 △

- 이우조
- ◆통계청 ◇ 일반고위직공무원 임용 △통계데이터허브국 통계서비스정책관 이명호

부음

- ▲ 박형기씨 별세, 서정기(서울의대 명예교수)·서정선(한국바이오협회장·마크로젠 회장·분당서울대병원 석좌교수)·서정환(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씨 모친상, 김교순(건국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이은희씨 시모상, 김창진(아산병원 신경외과 교수)씨 장모상 = 1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3호실, 발인 4일 오전 8시. 02-3010-2263

3년새 매장 30개... 신세계 시코르 'K뷰티 랜드마크' 우뚝

6일 100평 규모 홍대점 문 열어
나스·힌스 130개 브랜드 한자리
20대 남성들 위한 '셀프바' 도입
외국인 위한 마스크 편집공간 마련

'한국형 뷰티 편집숍' 시코르가 홍대에 서른 번째 매장 오픈을 알리며 K뷰티 쇼핑 랜드마크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지난 2016년 12월 대구점에 처음 문을 연 시코르는 3년동안 전국 주요 지역에 점포를 오픈했으며, 현재 목표 매출 대비 15% 넘는 실적을 기록 중이다.

오는 6일 100평(330.0m2) 규모로 선보이는 시코르 홍대점은 130여개의 브랜드를 한자리에 모았다. 입생로랑, 나스, 투페이스드 등 럭셔리 브랜드부터 힌스, 바이네프, 헉슬리 등 인기 K뷰티를 모두 총망라했다.

특히 홍대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20대 남성들의 셀프 바를 도입했으며, 테마별로 바뀌는 브랜드 팝업 존도 새롭게 꾸몄다.

시코르 홍대점은 홍대상권 핵심으로 꼽히는 홍대입구 사거리대로변 아일렉스 스퀘어 1층에 자리잡는다. 메가박



시코르 홍대점 조감도

스, 위워크, 삼성전자 디지털플라자 등이 입점한 공간이다.

홍대 지역은 2030 젊은 세대 유동 인구가 집중적으로 몰리는 특징을 보이며 명동 못지 않게 글로벌 관광객들로 붐비는 곳이다.

시코르는 지난 해 홍대에 테스트 점포를 운영하며 지역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예측했다.

실제로 시코르 AK&홍대 매장은 기존 시코르 매장 중 2030 매출이 가장 높다. 지난해 실적을 살펴보면 시코르 AK&홍대의 25~34세 매출 비중은 전 연령 대비 47.8%로 시코르 매장 중 1위를 기록했다. 40대 매출이 가장 많은 시코르 경기점에 비해 2배가 넘는 숫자다.

(2018년 시코르 경기점 25~34세 매출 비중: 20.7%)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시코르 홍대점은 밀레니얼 세대를 위해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다양한 공간을 선보인다.

우선 시코르 한복판에 특별한 럭셔리 브랜드 팝업 존을 마련했다. 문을 열자마자 화려한 인테리어로 시선을 끄는 이 공간은 마치 백화점 1층의 브랜드 팝업 코너 같은 느낌을 자아낸다. 시코르 내 '숍인숍(shop in shop)' 공간으로 홍대점 오픈에 맞춰 글로벌 브랜드 '프레시'가 홀리데이 팝업을 준비했다.

늘어나는 20대 남성 고객들을 타깃으로 한 '그루밍 존'과 '그루밍 바'도 있다. 자신을 꾸밀 줄 아는 남성들이 늘어



시코르 명동점

/신세계백화점

나면서 기존보다 남성 코너를 20% 확대했으며 오프라인 최초로 남성 전용 화장품인 '더 그루밍'을 선보인다. 랩 시리즈, 바이오 엠, 헤라 엠, 블랙 몬스터, 그라펜 등 다양한 MD도 돋보인다.

처음으로 헤어, 향수, 스킨케어, 메이크업 등 남성용으로만 카테고리화한 것도 특징이다. 남성을 위한 컨실러, 파운데이션, 립밤 등 색조 제품도 강화했다.

외국인 매출 비중이 높은 것도 고려했다. 올해 10월 시코르 매장 매출을 살펴보면 기존 시코르 AK&홍대 매장은 외국인 매출 비중이 전체의 34.1%를 차지한다. 시코르 신세계 본점 97.9%, 명

동점 68.9%, 부산 센텀시티점 56.4%, 가로수길점 43.9%에 이어 탑5에 드는 숫자다.

이에 홍대점에서는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힌스, 바이네프, 네이밍 등 단독 브랜드를 선보이며 헉슬리, 클리어스 등 시코르가 인큐베이팅 한 인기 K 코스메틱도 소개한다.

명동점에서 진행해 외국인 고객들에게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던 마스크 편집 공간도 홍대점에서 만날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 시코르담당 김은상무는 "K뷰티를 알리는 한국형 편집숍의 원조 시코르가 오픈 3년 만에 30호점을 열게 된다"면서 "새롭게 선보이는 홍대점이 글로벌 고객들을 위한 뷰티 쇼핑 랜드마크로 떠오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어드벤처 캘린더 /신세계백화점

풀무원, 쫄깃한 도우로 냉동피자 시장 '도전장'

크러스트 피자 2종 등 총 5종 출시
이탈리아·美 최신 제조기술 도입

최근 냉동피자 시장이 급성장한 가운데, 풀무원이 기존 냉동피자의 단점을 혁신적으로 보완한 '프리미엄 피자'를 선보이며 냉동피자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했다.

풀무원식품은 '노엣지 콤팩트토픽 피자' 3종과 '크러스트 피자' 2종 등 총 5종의 냉동피자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리서치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냉동피자 시장 규모는 약 1000억원 수준으로 최근 3년간 빠르게 성장했다. 시장규모는 급성장한 반면 질기고 딱딱한 도우와 적은 토픽으로 소비자 만족도는 점점 떨어지고 과도한 가격경쟁까지 더해 냉동피자 성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풀무원은 글로벌 피자 선진국 이탈리아와 미국에서 최신 피자 제조기술을 도입하고 2년간 연구개발해 가정용 냉동피자의 단점과 한계를 혁신적으로 개



프리미엄 냉동피자 '노엣지 콤팩트토픽&크러스트 피자' /풀무원

선한 '프리미엄 피자'를 선보인 것이다. 피자 제조 과정을 모두 자동화해 피자 도우의 끝부분인 '엣지'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노엣지 피자 3종은 엣지 전체를 토픽으로 가득 덮어 치즈와 토픽을 풍부하게 즐길 수 있는 프리미엄 피자다. 크러스트 2종은 피자 전문점에서조차 작업으로 만드는 크러스트 부분까지 완전 자동화 공정으로 생산하여, 이제 가정에서 한결 간편하게 프리미엄 크러스트 피자를 즐길 수 있게 됐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에어프라이어 트렌드에 맞춰 에어프라이어 조리해 최적화해 출시했다.

에어프라이어 조리했을 때 질거나 딱딱하지 않고,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이른바 '겉바속촉' 식감을 혁신적으로 구현했다. 전자레인지에 조리해

도 질기지 않고 촉촉한 식감을 즐길 수 있다.

토픽 재료의 수분을 적절히 조절, 도우가 흐물거리는 현상도 방지했다. 치즈 배합비와 규격 설계도 신경 써 피자가 식은 후에 치즈가 잘 늘어나고 맛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피자 도우를 쉽게 4등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다양한 용량의 에어프라이어에서 조리할 수 있으며 먹고 싶은 만큼 쪼개서 조리할 수 있다.

이처럼 풀무원식품 PM은 "기존 냉동피자는 피자 도우 끝부분이 질기고 딱딱해 먹다 남기는 소비자가 많았다"며 "2년간 연구개발해 기존 냉동피자의 단점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노엣지 피자과 크러스트 피자과 국내 냉동피자 시장의 양과 질 모두 한 차원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롯데백, 점포순회 '앨리스 마켓' 운영

백화점서 접하지 못했던 상품 기획

롯데백화점이 주도적으로 트렌디한 행사를 기획하고자 발벗고 나섰다. 평소 백화점에서 접하지 못 했던 상품과 브랜드 기획을 통해 집객과 매출 활성화를 동시에 잡겠다는 취지이다.

롯데백화점은 영국 동화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이름을 딴 '앨리스(eli-LESS) 마켓'을 점포별 순회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앨리스(eli-LESS)는 롯데의 'eli'와 없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LESS'의 합성어로, 평소 백화점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신기한 상품들의 공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앨리스마켓은 평소보기 어려운 상품과 브랜드, 그리고 셀럽 등의 애장품을 선보이는 '셀러(Seller)마켓'과 당사 바이어들이 준비하는 '바이어(Buyer)마켓'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셀러마켓'은 의류 50%, 잡화 30%,



앨리스마켓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있는 고객들. /롯데쇼핑

F&B 20% 구성으로 전개해 패션상품의 구성비를 높인 공간으로 셀럽과 연계한 스타일링과 애장품 판매 등 구역 내 집객성 체험 이벤트도 병행한다.

수원점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앨리스마켓 1회에서는 프리미엄 라면 브랜드인 '요괴라면', 대만 여행필수 쇼핑리스트인 '카디나포테이토', 라이징스타 디자이너 황지은이 전개하는 여성복인 '소피엔테일러' 등 70개 이상의 상품과 브랜드를 선보였다. /신원선 기자

유통단신

오뚜기-래퍼 개코 협업 개포동 쌀국수 첫 선

오뚜기가래퍼 '개코'와 협업해 만든 '개포동 쌀국수(사진)'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오뚜기가 출시한 '개포동 쌀국수'는 '개코의 포(Pho) 동네 한바퀴'의 줄임말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선 공개된 티저 영상으로 쌀국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박인용 기자



CJ제일제당 스팸마라 선보여

CJ제일제당이 캔햄 브랜드 스팸의 라인업을 확대하며 소비자 입맛 사로잡기에 나섰다.

CJ제일제당은 식품업계를 강타한 '마라(麻辣)' 열풍을 잇는 '스팸마라(사진)'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스팸마라'는 입안이 얼얼한 마라 본연의 맛과 풍부한 육즙의 스팸이 조화를 이룬 제품이다. /박인용 기자



'아이스 초코파이情' 등 4종 출시

오리온-베스킨라빈스 맞손

오리온은 '초코파이情'이 SPC그룹이 운영하는 베스킨라빈스와 손잡고 컬래버레이션 메뉴로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메뉴는 초코파이를 활용한 '아이스 초코파이情', '아이스

초코파이情 블라스트', '아이스 초코파이情 케이크', '아이스 초코파이情 초코 마시멜로' 등 총 4가지로 출시된다. 전국 1400여개 베스킨라빈스 매장에서 12월 한 달간 판매한다.

▲아이스 초코파이情은 달콤한 초콜릿과 바닐라, 마시멜로우 향 아이스크림에 오리온 초코파이와 바삭한 초콜릿



칩이 들어간 제품으로, 달콤하고 부드러운 초코파이 맛을 그대로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아이스 초코파이情 블라스트는 이달의맛 초코파이 아이스크림에 초코파이를 통째로 갈아 넣어 진하고 풍부한 초코파이 맛을 선사한다. /박인용 기자



/롯데호텔제주

X-MAS는 호텔에서 가족과 다양한 객실 패키지 ‘눈길’

롯데호텔제주 ‘윈터 스페셜 메뉴’
그랜드하얏트 아이스링크 입장권
웨스턴조선 신년음악회 생중계
신라호텔 라이브공연과 와인 제공

호텔업계가 크리스마스, 연말 등 12월 페스티벌(festive) 시즌을 맞아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객실 패키지를 다채롭게 선보이며 고객 유혹에 나섰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호텔제주는 겨울 시즌을 맞아 따뜻한 겨울 여행의 설렘을 더하는 ‘설레는 온도’ 패키지를 내놓았다. 내년 3월 1일까지 투숙이 가능한 이 패키지는 디럭스 가든 룸과 박당 조식 2인용으로 구성된다. 특히 한겨울의 추위를 녹여줄 ‘윈터 스페셜 메뉴’ 1종이 특전으로 제공된다.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은 연인과 로맨틱한 크리스마스를 계획하는 고객들을 위해 ‘고 패스티브’ 패키지를 12월 20일부터 30일까지 선보인다.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의 ‘고 패스티브’ 패키지는 스탠다드 룸 1박, 와인을 포함한 로맨틱 웰컴 셋업, 실내 수영장 및 체육관 시설 무료 이용 혜택을 포함한다. 뿐만 아니라, 본 패키지는 아이스링크 2인 입장 및 스케이트 대여 혜택을 제공한다.

서울 웨스턴조선호텔은 오는 2020년 1월 1일 새해를 맞아 ‘2020 빈 필하모니 신년음악회’를 실황 생중계로 진행한다. 국내 호텔에서는 최초로 2014년부터 진행한 이래 7번째 빈필하모니

신년음악회를 실황 생중계하고 있다. 오후 5시부터 9시 45분까지 약 5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서울신라호텔은 연말 휴가객을 위해 ‘윈터 윈터랜드’ 패키지를 선보인다. 연말 파티장으로 꾸며진 호텔 최고층 이그제큐티브라운지에서 라이브 공연과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상품이다.

워커힐 호텔앤리조트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12월 20일부터 25일까지 온 가족이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크리스마스 패키지 4종을 선보인다. ‘휘바’ 패키지는 그랜드 딜럭스 룸 1박과 더 뷔페 조식을 제공한다.

JW 메리어트 서울은 크리스마스 및 연말을 가장 로맨틱하게 보낼 수 있는 특별 시즌 패키지를 선보인다. 디럭스에서의 한강과 남산, 화려한 도심 뷰를 감상하며 시몬스 블랙 라벨 매트리스 침대와 릴렉싱 소파에서 여유롭게 휴식도 취할 수 있으며, JW 메리어트 서울 페이스트리 셰프들이 독창적이고 아름답게 수제 제작한 크리스마스 케이크 ‘화이트 초콜릿 베리 박스’와 프리미엄 와인 1병을 룸 서비스로 즐길 수 있다.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는 객실과 함께 캐나다의 진저브레드 하우스 대표 브랜드인 ‘크리에이트 어 트리트’의 진저브레드 미니 빌리지 쿠키 키트가 포함된 ‘지어줘 홈즈 패키지’를 선보이고, 안다즈 서울 강남은 ‘산타 인 안다즈’ 패키지로 가족 고객을 겨냥했다. /박민우 기자 parkiu7854@

JW중외제약 빈혈치료제 日서 신약허가 신청

먹는 약으로 적혈구 생산 촉진

활성대조약비 비열등성 입증 1월부터 국내서 3상 임상시험 진행

JW중외제약이 국내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새로운 신성빈혈치료제가 일본에서 신약허가 단계에 돌입했다.

JW중외제약은 일본 ‘재팬 타바코(JT)’가 신성빈혈치료제 ‘JTZ-951’의 신약허가신청서를 일본의약품요리기종합기구(PMDA)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JTZ-951은 적혈구 생성 촉진 호르몬인 에리스로포이에틴(EPO)의 내부 생성을 활성화하고 철 대사를 담당하는 분자의 발현을 제어함으로써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는 새로운 기전의 신약이다. 기존 주사제와 달리 경구제로 개발돼 치료의 새로운 옵션을 제공한다.

JT는 일본에서 진행한 임상 3상 시험에서 효능과 안전성을 확인했다. 투석을 받기 이전 단계의 신성빈혈 환자와 혈액 투석을 24주 동안 유지한 환자에게 JTZ-951을 투여한 결과, 활성대조약인네스프 프리필드시린지투여군 대비 비열등성을 입증했다.

JW중외제약은 지난 2016년 JT와 JTZ-951에 대한 국내 임상과 판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1월부터 국내 20개 종합병원에서 3상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JTZ-951은 기존 신성빈혈치료제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신약”이라며 “국내 개발 단계를 조속히 마무리해 신성빈혈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빈혈이란 신장에서 원인이 돼 생기는 빈혈로 만성 신장병(CKD) 환자에게 심각한 합병증 중 하나다. 신장 기능 장애로 신장에서의 조절호르몬 생성 능력이 감소되는 병이다. 현재 국내 신성빈혈 치료제 시장은 약 800억 원으로 추정된다.

JW중외제약은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혁신신약 개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임상 중인 신약후보물질을 도입해 국내 허가권과 판권을 확보하는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우수한 오리지널 파이프라인을 확대하고 있다. JTZ-951와 함께 기대를 모으는 후속라이센싱 파이프라인으로는 혈우병치료제 ‘렘브라’, 이차성부갑상선기능항진증 치료제 ‘AJT240’ 등이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co.kr

동국제약,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사업진출

‘HD201’ 제조 위·수탁 계약 체결 향후 파이프라인 지속적 협력

동국제약이 바이오 의약품 위탁개발과 위탁생산(CDMO) 사업에 진출한다. 이 사업을 회사 성장동력의 한 축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동국제약은 지난 달 29일,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와 허셉틴 바이오시밀러인 ‘HD201(제품명 투즈뉴)’의 제조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는 투즈뉴의 원료를 제조하고, 동국제약은 진천 공장에서 완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투즈뉴는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의 관계사인 싱가포르 프레스티지바이오 파마가 주력 파이프라인으로 개발한 유방암과 전이성 위암 치료제인 허셉틴 바이오시밀러다. 최근 글로벌 임상 3상을 완료하고 먼디파마와 서유럽 판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으며, 오는 2020년부터 세계 시장에 판매될 예정이다.

동국제약의 오흥주 대표이사는 “자



동국제약 오흥주 대표이사(오른쪽)와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이문재 대표이사가 지난 달 29일 진행된 바이오시밀러 투즈뉴 위·수탁 생산 계약 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가 지속적으로 성장 동력 발굴에 힘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계약은 CDMO 비즈니스 성장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계약은 임상시료 생산 단계부터 공정 개발 및 대량 생산 체계까지 전 과정을 함께 논의하고 준비하는 등 두 회사의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동국제약과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는 이번 제조 위·수탁 계약을 시작으로

향후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협력을 하기로 했다. 현재 다른 바이오 업체들과도 임상 시료를 제조하는 등 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품질과 기술력을 강화하여 CDMO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동국제약은 50년 역사를 가진 토탈헬스케어 그룹으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헬스케어 등 전 사업부문이 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생애주기별 맞춤 치약으로 관리하세요”

대웅제약 연령대별로 차별화

대웅제약이 구강생애주기별 맞춤 기능성 치약을 출시했다. 영유아기부터 중장년기 까지 연령대별로 차별화된 구강 관리 기준을 제시한다.

대웅제약은 생애주기별 체계적인 구강 관리를 위한 맞춤 치약 ‘네티가드랩(사진)’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네티가드랩’은 대웅제약과 구강건강



전문가인 서울대학교 치과대학교수진이 공동 개발한 치약으로, 구강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해 총 4단계로 구성된 기능성 맞춤 치약이다.

1단계 ‘엔젤’은 영유아 유치용 치약으로, 어린 아이들의 유치에 충치가 생기는 것을 막아주며, 천연 블루베리향으로 이를 처음 닦는 아이의 거부감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2단계 ‘키즈’는 천연 딸기향으로 아이의 양치습관을 길러주고, 충치 발병률이 가장 높은 시기인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양의 불소가 함유돼 유치와 영구치를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데에 도움을 준다.

3단계 ‘유스’는 치아 건강과 미용에 관심이 높은 10대부터 30대의 하얏고 튼튼한 치아 관리에 집중된 치약으로, 충치 예방에 도움을 준다. /이세경 기자

동아쏘시오 정보보호 힘써 ‘ISO27001’ 획득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정보보호경영 시스템 국제표준인 ‘ISO27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27001 인증 수여식은 지난 달 29일 동아쏘시오그룹 본사 크레도스 클럽에서 실시됐다. 수여식에는 한중현 동아쏘시오홀딩스 사장, 송경수 BS I Korea 총괄책임 대표, 다니엘 카루더스 주한영국대사관 통상정책참사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ISO2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정보보호경영 시스템 국제표준 인증이다. 인증 획득을 위해서는 정보보호 정책, 물리적 보안, 접근 통제, 법적 준거성 등 정보보호 관리

영역 14개 분야와 114개 세부 통제항목에 대한 엄격한 심사과정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기업의 자산인 정보를 각종 위협으로부터 지키고,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체계적인 정보보호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부서별 시스템 및 주요 데이터 파악, 정보보호 정책 및 지침 제정, 내부 보안 감사 등을 실시했다. 지난 9월에는 정보보호 중요성 인식을 위한 정보보호경영 선포식을 개최했고 회사 내 정보보호 활동을 수행하는 보안지킴이 선정, 임직원 대상 정보보호 활동 공지 및 교육을 실시했다. /이세경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장센터 12일 콩팥병 강좌 개최

이대목동병원 신장센터는 오는 12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병원 2층 대회의실에서 ‘만성콩팥병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만성콩팥병과 생활수칙’을 주제로 한 이번 건강강좌는 ▲콩팥병을 지키는 생활수칙(최규복 신장센터 교수) ▲만성콩팥병과 수면 부족(백경희 인공신장실 간호파트장) ▲1일 섭취 가능한 과일군, 채소군 조리 방법(최수빈 임상영양사) 등의 강연과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건강강좌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이세경 기자

SK하이닉스 광고, 구글 '10월 리더보드' 선정

기업 광고 '청주 직지편' 인기

SK하이닉스 광고 영상 '청주 직지편'이 구글이 선정한 히트 광고에 뽑혔다.

2일 SK하이닉스 뉴스룸에 따르면 구글 유튜브 아시아 퍼시픽은 '2019년 10월 리더보드'에 SK하이닉스 청주 직지편을 선정했다.

청주 직지편은 세계 최초 금속 활자를 만든 청주가 세계적인 반도체 낸드플래시를 이어서 만든다는 내용을 위트있게 표현한 광고다.

유튜브에서는 국내에서는 3000만뷰를 넘어서는 인기를 끌었으며, 광고를 넘기지 않고 보는 비율도 높았다. 구글은 긍정적인 댓글과 영상 공유량, 광고 검색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리더보드에 선정했다.

청주직지편은 아태지역 수상작들과 함께 전세계 광고마케팅 전문가들이 보는 '캠페



SK하이닉스 광고 영상 '청주 직지편' /SK하이닉스

인 아시아'와 유튜브에서 자체 운영하는 '싱크 위드 구글'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SK하이닉스는 반도체를 이천 지역 특산품으로 정하자는 내용을 그린 '이천 특

산품'편으로도 뜨거운 반응을 받은 바 있다. 청주 직지편과 함께 '2019 대한민국 광고대상' 3개 부문을 수상했으며, SK하이닉스 유튜브 채널 구독자도 29만명을 넘어섰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예탁원, 사회공헌대상 중기부장관상 수상

창업기업 육성 등 일자리 창출 기여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11월 29일 국회에서 개최된 '제14회 2019 대한민국사회공헌대상'에서 일자리창출부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그간 클라우드펀딩 지원사업, 상생금융사업,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K-Camp) 운영, 사회적 기업에 대한 수수

료 면제 등을 통해 창업·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것을 높게 평가받았다.

특히 지난 3년간 총 150여명의 신입직원을 채용했고,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신(新)중년 금융교육강사, 박물관 시니어도슨트 사업 등을 통해 청년, 노인 등 취업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민간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손범지 기자 sonumji301@



이재호 한국예탁결제원 일자리창출본부장(왼쪽)과 이순환 한국예탁결제원 일자리창출추진단 선임조사원이 '일자리창출부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발 묶인 '데이터 3법'



기지수첩

구서연 (산업부)

이번에는 통과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또다시 발이 묶이게 됐다. 지난 29일 국회 법사위에서 데이터 3법중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이 여야간 정치대립으로 통과되지 못하면서다. 데이터 3법이 국회에 올라온 지 1년이 흘렀고, 이번에는 여야 3당 대표가 처리를 합의한 법안이었던 만큼 IT(정보기술) 업계가 갖는 실망감은 상당하다.

업계가 데이터 3법의 통과를 외치는 이유는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큰 4차산업혁명 시대에 한국이 뒤처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IT 강국으로 불리지만 정작 데이터 경쟁력은 OECD 최하위에 속한다. 이미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했음에도 규제에 막혀 서비스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매년 통과에 난항을 겪어 규제로 꽂 막힌 형국이다. 이대로라면 데이터 선진국과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져 한국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 불보듯 뻔하다.

데이터 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신용정보법은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정보를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가명 정보를 활용하겠다는 게 중심이다.

물론 통과만이 능사는 아니다. 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자칫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요소가 발생할 수 있어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하지만 이를 우려해 법안 통과를 막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는 것과 같다.

최근 만난 한 IT 업계 관계자는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여태 막혔던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없다"며 "이대로라면 한국데이터 산업은 사망 선고를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정치가 경제·산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은 피해야 하지 않을까. /yuni2514@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2월 3일 (음 11월 7일) http://www.saju4000.com

- 쥐** 36년생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48년생 자식이 맘에 안 들어도 내가 낳은 걸 어찌겠나. 60년생 우물에서 바라본 하늘은 선망의 대상일 뿐. 72년생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니 알아서 판단. 84년생 운전할 때 양보하자.
- 말** 42년생 자식의 허물이 곧 나의 허물. 54년생 욕심으로 신망을 잃는다. 66년생 어느 길로 가도 목적지에 도착할 만큼 운이 좋은 날. 78년생 가보지 못한 길에 그리움이 쌓인다. 90년생 졸작이 명품으로 둔갑하는 순간이 온다.
- 양** 37년생 정든 친구가 떠나간다. 49년생 파란색이 행운을 불러오니 기분전환이 된다. 61년생 비밀 언덕이 필요하다. 73년생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이니 우선 시작을 하자. 85년생 삶의 지혜를 책으로 얻으니 공부를 열심히.
- 호랑이** 38년생 정제되어 있으면 낙오된다. 50년생 마른논에 물들어오듯이 일이 잘 해결. 62년생 이웃과의 거리가 쉽게 풀리지 않는다. 74년생 지인을 잘 관리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 86년생 모난 돌이 정 맞는 법이니 오늘은 자중.
- 토끼** 39년생 무지개가 뜨니 좋은 일이 있다. 51년생 불평을 줄여보도록. 63년생 자기중심으로만 생각하면 조화가 깨지기 쉽다. 75년생 남에게 준 상처는 내게로 돌아온다. 87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마음이 허전하고 인생이 허무하다.
- 원숭이** 40년생 이만하면 원더풀한 인생. 52년생 병이 왔으나 약도 주여지니 실망은 금물. 64년생 성공의 기미가 보이니 적극적으로 행동. 76년생 버릴 수 있다면 아직 희망이 있는 것이다. 88년생 기쁨과 근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 닭** 41년생 모르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푼다. 53년생 고인 물은 흘러보내야 썩지 않는다. 65년생 직장에서 기쁜 소식이 온다. 77년생 현실에 만족하면 후회는 없으나 발전도 없다. 89년생 아직은 때가 아니니 시간을 갖고 기다리자.
- 원숭이** 43년생 이웃집 불구경에 정신을 뺏긴다. 55년생 행운이 불어오니 일이 잘 성사. 67년생 일의 결과가 좋아 명예가 높아지는 날. 79년생 남의 것을 욕심내면 내 것이 2배로 나간다. 91년생 한밤중에 비단옷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격.
- 원숭이** 44년생 이기적인 마음으로 거짓말을 한다. 56년생 내일의 영광을 위해 인내가 필요. 68년생 낙숫물에 바위가 돌리는 법이니 꾸준한 노력이 필요. 80년생 호랑이띠와 닮지 마라. 92년생 희로애락을 얼굴에 나타내지 마라.
- 닭** 45년생 문서로 인한 이익이 있다. 57년생 명예손상이 우려되니 말소다. 69년생 성공이 바로 눈앞에 있으니 좀 더 노력. 81년생 확실한 의사 표현이 관계를 더 좋게 한다. 93년생 눈치가 빨라야 절에 가서도 새우젓 얻어먹는다.
- 개** 46년생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격. 58년생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간절히 기도. 70년생 불행은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더 커진다. 82년생 그물을 치지 않고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없다. 94년생 이직보다는 유지를.
- 돼지** 47년생 귀인이 나타나니 운이 활짝 열린다. 59년생 계획도 없이 일을 시작하다 가는 실패하기 십상. 71년생 새로 시작한 일이 뜻대로 진행. 83년생 가는 사람도 잡아야 할 때가 있다. 95년생 첫눈에 반하는 이성이 나타난다.



김상회의四季

경영자 사무실과 풍수

심리를 반영하는 좋은 풍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미국의 백악관에는 오벌 오피스라는 곳이 있다. 오벌은 영어로 타원형, 달걀 모양이라는 뜻이다. 오벌 오피스는 대통령 집무실을 말하는데 이름 그대로 타원형을 하고 있다. 업무를 볼 때 사용하고 중요한 연설을 하는 곳이어서 백악관의 상징이다.

오벌 오피스를 풍수적으로 본다면 대단히 훌륭한 구조이다. 둥그런 모양의 공간은 좋은 기운이 강력하게 모이는 곳이다. 중요한 공간을 둥근 모양으로 만들면 에너지가 집중된다.

오벌 오피스처럼 좋은 기운이 모이는 또 다른 구조는 돔 형태이다. 천장이 돔처럼 둥근 공간은 생기가 모여든다. 기가 한곳으로 모이면 에너지가 응축되고 그 에너지는 재물이 모이게 한다.

서양에는 유명한 돔 형태의 건축물이 많다. 로마의 판테온 신전은 그중에서도 으뜸이다. 로마제국 시대에 만들어진 판테온 신전은 말 그대로 신들을 위해 만든 공간인데 거대하고 완벽한 돔 구조를 하고 있다. 로마사람들이 풍수를 고려한 건 아니겠지만 동서양 모두 돔 형태가 기운을 모아준다는 인식이 있던 것은 아닌가 싶다.

천장이 높은 공간이 창의력에 도움을 준다는 건 입증된 사실이다. 좋은 기운이 모이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산실로도 적합하다. 천장이 높은 공간에서 공부한 아이들의 성적이 더 좋아졌다는 연구 결과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경영자의 눈은 현재와 미래를 보고 머리는 어떻게 하면 더 도약할 수 있을지를 생각한다.

그렇기에 경영자에게는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그중 해야 할 것이 좋은 기운을 모을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을 갖추는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3	4					
1	2	5		8	3	4		
		3		7		9		
2	7	1		6	4	9		
			4					
6	9	7		3	5	2		
		1		3		2		
7	5	4		9	8	6		
		2		7				

5			9	8				2
	9	4	1		5	6	3	
6		3		1		9		5
	1		2		3		7	
4		9		6		3		1
	6	2	7		9	8	5	
3			4		1			9

스도쿠 정답

6	5	1	2	9	7	8	4	3
8	9	8	6	1	7	5	2	4
7	2	5	8	4	3	6	9	1
1	7	9	8	6	4	9	7	5
2	8	9	7	6	8	5	1	4
8	6	7	9	5	1	2	3	6
3	8	6	1	9	8	7	5	4
9	7	8	6	5	2	1	4	3
5	1	2	7	4	9	8	6	3

8	1	2	5	9	8	7	6	4
6	9	2	1	8	7	4	5	3
7	5	8	6	4	2	9	1	3
1	8	9	7	5	6	2	4	3
9	7	4	6	2	5	1	8	3
5	2	6	7	1	8	4	9	3
8	9	5	2	1	4	6	7	3
2	7	1	8	6	9	4	5	3
4	6	5	9	7	4	1	8	2

문제 제공= **보스**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33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439호

“홈스타일링 필요하세요? 앱으로 디자이너 연결해 줘요”



홈스타일링 플랫폼 ‘홈리에중’

디자이너-고객 직접 연결 플랫폼 500만원 이하부터 홈스타일링

누구나 멋진 집에 살고 싶은 욕망이 있다. 영화나 드라마, 화보에 나오는 집 말이다. 그러나 개인이 하나하나 직접 인테리어하기엔 시간도, 디자인 감각도 부족하다. 전문가에게 맡기자니 상상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박혜연 홈리에중 대표가 나섰다.

“디자인은 정말 잘 사는 사람들에게 국한된 소유물처럼 여겨졌어요. 먹고살기 빠듯해서 대중해놓고 살았는데 나도 좀 쾌적하게 살고 싶다 하는 고객들이 갈 곳은 없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디자이너의 감성적인 터치를 제공해주고 싶었습니다.”

중산층도 인테리어 디자인을 누릴 수 있도록. 이런 박혜연 대표의 꿈을 담아, 지난 4월 홈스타일링 서비스 큐레이션 플랫폼 ‘홈리에중’이 탄생했다.

◆예산과 감성 맞는 디자이너-고객 직접 연결

홈리에중은 디자이너와 고객을 직접 연결해주는 플랫폼이다. 홈페이지에 예산·가족 구성원·입주 정보·공간 사양 등을 입력해 서비스 신청을 하면 거기에 맞춰 디자이너와 연결해준다. 현재 약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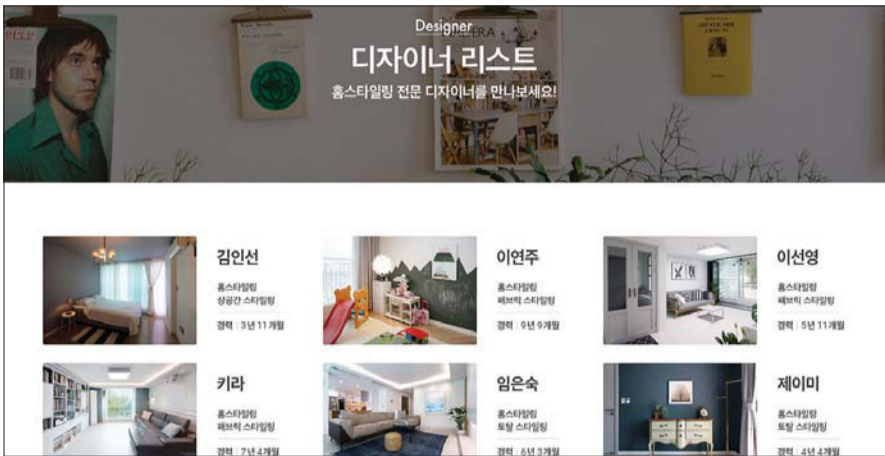
박혜연 홈리에중 대표 /홈리에중

홈리에중, 디자이너 감성 거래 ‘이 느낌 좋은데!’를 사고 파는 것 디자인 거래하게 만드는 게 목표

명의 디자이너가 홈리에중 플랫폼에 들어와 있다. 고객은 포트폴리오를 보고 원하는 디자이너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연결된 디자이너는 고객과 상담을 통해 예산과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홈스타일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홈리에중은 500만원 이하부터 5000만원 이상 사이의 중산층 고객을 위한 홈스타일링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했다.

“디자이너는 일단 고객 파악을 먼저 합니다. 상담을 통해 이 고객이 집 안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해하는 거죠.



홈리에중 홈페이지에서 디자이너 리스트와 포트폴리오를 확인할 수 있다. /홈리에중 홈페이지

그리고 고객이 제시한 기준 안에서 스타일링만 할 건지, 전체 수리까지 할 건지를 결정합니다. 신혼부부의 20평대 아파트라면 씩 뜯어고치는 것 대신 가구나 소품을 이용한 디자인 컨설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고객 예산이 300만 원밖에 없으면 그 300만 원을 제일 잘 쓸 방법을 고안합니다. 그 고객에게 가장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10평짜리 복층 오피스텔이나 혼자 살기 딱 좋은 15평 아파트 인테리어도 이런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박혜연 대표는 지금까지 인테리어 디자인은 리모델링 시공 중심이었다고 설명한다. 디자이너가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 박 대표는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 디자이너가 공간을 끝까지 책임질 방법을 택했다.

“인테리어 디자인의 무게중심은 시공에 치우쳐 있습니다. 디자이너가 할

수 있는 것은 마감재나 조명 같은 걸 고르는 데에서 그쳤죠. 저희는 처음부터 공간 세팅이 끝날 때까지 책임 집니다. 결정해야 하는 것이 200~300가지 정도 있어요. 거울은 왼쪽에서 몇 센티미터 들어서 달지, 침구를 린넨으로 할 건지 구스로 할 건지, 이런 것이 다 끝나야 끝이죠. 이런 것이 디자이너도 원하는 일이에요. 도면만 치거나 마감재만 고르는 것이 아닌, 한 공간을 비포에서 애프터로 바꾸는 것 말입니다.”

◆디자이너의 감성을 거래한다

박혜연 대표는 홈리에중의 방식이 디자이너의 감성을 거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자이너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이런 느낌, 이런 감성을 사겠다고 결정하는 거다. 박 대표는 이런 방식을 통해 인테리어

디자인에 값을 매기고 싶다고 말한다.

“디자이너가 가진 ‘이 느낌이 좋은데!’를 사는 거예요. 원래 인테리어 디자인 시장에서 이런 감성은 돈을 받지 못했어요. 견적서에 디자인비라고 나와 있는 것도 없죠. 공사비용에 두루뭇술하게 녹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디자인을 사고팔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향후 디자이너의 시그니처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싶습니다.”

박혜연 대표의 목표는 홈리에중 플랫폼에 디자이너를 1000명까지 확보해 전국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박 대표는 이를 통해 같은 뜻을 가진 디자이너가 많아져 홈스타일링 전문가 시장을 활성화되기를 원한다.

“저와 같이 공간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꼭 필요한데, 이들이 일을 배울 곳도, 일할 곳도 없었습니다. 모델하우스 디스플레이나 전시 공간 기획 정도가 다였습니다. 아니면 도면이나 설계에 국한되어 있었죠. 시장과의 접점에서 전문가가 설 수 있는 기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같은 고민을 한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고 싶어서 인테리어 디자인 전문가 플랫폼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을 키울 수 있는 아카데미도 만들고 싶어요.”

/배한님 기자 ericabae1683@metroseoul.co.kr



중기연구원 4일 ‘中企 청년고용 세미나’

중소기업연구원은 한국고용정보원과 오는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청년고용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청년고용 정책과 중소기업’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미래 일자리 변화와 청년고용 정책’을 주제로 한 세션1에선 한양대학교 전상길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박천수 선임연구위원이 ‘미래 일자리 변화와 청년고용’, 건국대학교 윤동열 교수가 ‘미래 고용시장 변화 대비 일자리 정책변화와 청년고용’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아울러 한국

노동연구원 김유빈 연구위원과 충남대학교 박지성 교수의 토론이 이어진다.

세션2에선 ‘중소기업과 청년고용’을 주제로 서울여자대학교 이종욱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국고용정보원 천영민 연구위원의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및 청년정책 인식에 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권준화 연구위원의 ‘독일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촉진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숭실대학교 광원준 교수와 한국노동연구원 성재민 연구위원의 토론이 펼쳐진다.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사전등록 없이 입장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AJ셀카 올 친환경차 거래량 1.6% 늘어

친환경차 인기가 중고차 시장으로도 옮겨가는 모습이다.

AJ셀카는 올 들어 지난달 28일까지 친환경차 거래량이 전년보다 1.6배 늘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전기차 비중은 지난해 3%에서 올해 13%로 대폭 확대됐다.

AJ셀카는 내연기관차 환경 오염 이슈가 확대되면서 친환경차 시장 입지가 커지는 영향으로 분석했다. 그 중에서도 전기차는 적은 소음과 부드러운 주행력 등 우수한 성능과 함께 정부 지원금 지급 등으로 인기를 높이고 있다고 봤다.

중고차 총 거래도 전년보다 18%나 증가했다.

인기 차량은 상반기와 같이 현대 LF 쏘나타와 그랜저 HG, 기아 레이가 1~3위를 이어갔다.

반면 LPG 차량 인기는 저조했다. 지난 2분기에 잠시 증가했을 뿐, 전체로 보면 지난해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내연기관과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를 내재하고 있는 데다, 친환경차 성장으로 매력을 어필하지 못한 것으로 AJ셀카는 해석했다.

잔존가치율도 상반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김재용 기자

TV하나로마트 리뉴얼... ‘돌발찬스’ 론칭

방송중 쌀·고구마 등 2500원에 판매
누적 주문액 180억... 농산물 소비 앞장

공영쇼핑은 우리 농축산물 전용 프로그램 ‘TV하나로마트’ 리뉴얼을 맞아 배송비만 내고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돌발찬스’를 론칭한다고 2일 밝혔다.

돌발찬스는 새롭게 1·2부로 개편된 TV하나로마트 방송 중 쇼호스트의 멘트와 함께 돌발적으로 시작하는 코너다.

쌀, 고구마, 사과 등 우리 농축산물을 배송비 2500원만 내면 구매할 수 있으며, 준비된 한정수량이 모두 판매되는 즉시 끝난다.

새단장 후 처음으로 3일 하루 찾아가



는 TV하나로마트 1부 ‘조금자 채소잡곡’, 2부 ‘임금님표 이천쌀’ 방송 중에는 ‘굴로장생 감귤 7kg’이 2500원에 ‘돌발찬스’로 판매한다.

TV하나로마트는 2015년 12월부터 매주 화요일 방송된 국내산 농축산물 전용 프로그램이다. 총 206회 방송해 누적 주문수량 40만건, 주문금액 180억원 어치를 기록하며 우리 농축산물 소비

촉진에 앞장서왔다.

공영쇼핑은 TV하나로마트 새 단장을 계기로 우리 먹거리에 대한 정보를 더욱 꼼꼼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배우 오미연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오미연의 야매주부’와 함께 TV, 유튜브 동시 생방송을 진행한다. 쇼호스트가 아닌 PD·MD가 직접 방송에 출연하는 ‘퍼펙트체크’ 코너를 통해 고객의 문의에 실시간으로 답한다.

이밖에 제작진이 직접 발로 뛰어 산지에 찾아가는 ‘진실탐사대’ 코너 등도 선보인다. 하나로마트 오프라인 매장에는 TV하나로마트 전용 세트를 설치해 LTE 생중계로 제철 농산물 시세와 이벤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bada@

일렉트로룩스, 식기세척기 2종 출시

세계 첫 ‘컴포트 리프팅 시스템’ 장착

일렉트로룩스는 2일 식기세척기 2종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일렉트로룩스는 식기세척기를 필두로 국내 대형가전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일렉트로룩스 스웨덴 본사는 소형과 대형 가전 부문을 하나로 합치는 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일렉트로룩스 식기세척기는 세계 최

초로 ‘컴포트 리프팅 시스템’을 장착했다. 문을 열고 하단 선반을 25cm 높이까지 들어올려주는 기능으로, 허리를 구부리지 않아도 식기를 담을 수 있다. 사람을 생각하는 디자인으로 ‘2017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최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만회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췄다.

세척력도 ‘360도 멀티 분사 세척’을 통해 극대화했다. 하단 회전 휠에서



360도 돌아가는 허리케인 세척수를 분사하는 기술이다. ‘익스트림살균 기능’으로 70도 온도로 식기를 살균해 유해균

을 제거하는 기능도 갖췄다. 물 때 없는 건조도 가능하다.

가격은 식기세척기 700이 209만원, 식기세척기 800이 299만원이다.

/김재용 기자 juk@

Wenger® Swiss Made Watches

A Swiss Company
since 1893



3 Year Warranty
Seaforce Chrono
01.0643.111



 **WENGER®**
wenger.co.kr

KOI COMPANY Co.,Ltd. 02)6403-2112

‘방직산업 메카’ 역사 속으로... 광주 전방·일신 공장 이전

설비 현대화 등 생산 능력 높여
평동산단 이전·기존 부지 개발 추진
광주시와 공공 기여 규모 등 협상

일제 수탈의 아픔, 산업화 시기 여공들의 애환을 품은 전방(옛 전남방직)과 일신방직 공장이 이전한다.

광주 근대 산업문화 유산인 방직공장의 변화와 함께 토지 용도변경으로 생길 개발 이익, 공공 기여 규모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방, 일신방직은 북구 임동 공장 부지 용도변경과 개발계획을 시와 협의하고 있다.

두 업체는 평동산단에 운영 중인 공장을 설비 현대화 등으로 생산 능력을 높여 임동 공장을 옮기기로 했다.

일신방직 임동 공장 부지는 13만600



광주 임동공장 전경 /연합뉴스

여㎡다.

350여명이 근무하며 하루 5만6000kg 원사 생산능력을 갖췄다.

전방 임동 공장은 부지 15만5600여㎡로, 2017년 말 가동을 중단했다.

두 회사는 임동 공장 부지 29만1800

여㎡용도가공업용지에서 상업·주거용으로 변경될 경우 연구 개발 시설, 주상복합 시설, 역사 공원, 도로 등 기반 시설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공장 부지에는 아파트나 호텔이 들어설 수도

있다.

광주시에 공장이 도심에 자리 잡아 생긴 민원 등을 고려해 이전 필요성은 공감했다. 임동 주민 4238명은 분진, 석면 가루, 소음 등 피해를 주장하며 공장 이전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지난해 10월 광주시에 제출하기도 했다.

광주시는 일부 보완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내년 초부터 사측과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건 없는 토지 용도변경은 특별로 비칠 수 있는 만큼 땅값 상승액의 절반 가량을 공공 기여금으로 활용해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을 조성할 방침이다.

근대 산업유산으로 상징성을 가진 기존 시설을 일부라도 보존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광주시가 의뢰한 친일잔재 조사 영역

에서는 전방, 일신방직 공장 부지에 가칭 근대 산업박물관을 건립해 일제 수탈 역사를 담은 콘텐츠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도심 공장의 이전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조만간 공공 기여 규모와 방안 등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며 “협상에만 2년이 걸린 다른 사례 등을 거울삼아 도시 계획적인 측면을 적절히 검토해 이전이 효율적으로 추진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동 공장은 1935년 일본방직업체가 설립한 공장이 모태다. 1945년 해방 이후 일본인들이 몰려가고 정부 소유 전남방직 공사로 출범했다가 1951년 전남방직 주식회사로 민영화됐으며 1961년에는 일신방직이 분할됐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metroseoul.co.kr



사상구가 부산시의 2019년 구·군 일자리 창출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김대근 사상구청장(가운데 노란 상의)이 지난 11월 20일 모라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홀로머리신과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 담기를 하고 있다.

부산 사상구, 일자리 창출 최우수 기관

부산 사상구가 2019년 구·군 일자리 창출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5000만 원의 상사업비를 받게 됐다. 금정구와 남구는 우수상을, 부산진구·사하구·영도구는 장려상에 각각 선정됐다.

2일 부산시에 따르면 일자리창출 실적 평가는 ‘일자리 창출 노력도 및 우수 사례’ 분야, 재정지원일자리 등 ‘일자리 창출 사업추진’ 분야, 취업알선 실적 등 ‘민간부문 일자리지원’ 분야, 일자리창출을 위한 ‘창업지원사업’ 분야 그리고 취업취약계층일자리창출 등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분야 등 5개 분야, 15개 항목을 평가했다.

시는 “이번 평가의 특징은 일자리창업과 소관 분야뿐만 아니라 청년·여성·

장애인·노인일자리 및 사회적경제분야를 담당하는 소관사업부와 공동으로 진행하여 구·군이 추진하는 있는 업무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였고,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정량평가 위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일자리정책의 성과 향상을 위하여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 중인 사회적일자리사업 추진 및 부산시·구·군 협력사업인 부산 OK 일자리지원사업 등도 평가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최우수상을 받은 사상구는 신발산업 혁신기술개발과 바이오 기능성 소재 개발 사업화 등을 위해 ‘2019년 풀뿌리 육성사업 추진’과 ‘팝업스토어 운영’, ‘기업체 틈새 배움터 운영’ 등을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산=최인택 기자 remark@

광주시, 친환경차 부품인증센터 2022년 개소

내년 3월 준공, 2022년 1월 개관
산단활성화·친환경차 발전 기대
인증·평가 장비 24종 구축 예정

광주시가 부지 매입을 시작으로 친환경 자동차 부품인증센터 건립 공사에 착수했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한국도지주택공사(LH)와 협의, 부품인증센터의 부지 매입 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이 들어설 빛그린 산단 내 2만9천916㎡ 부지에 360억원(국비 180억원·시비 180억원)을 들여 지상 2층 규모의 부품인증센터 건물과 인증·평가 장비를 구축할 예

정이다.

부지 매입비는 69억원이다.

시는 올해 2월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이후 중앙투자심의 통과,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설계 착수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쳤다. 내년 3월 센터 공사에 들어가 2021년 3월 준공, 2022년 1월 개관할 예정이다.

부품인증센터는 국가 차원에서 친환경 자동차와 부품의 공인인증·평가 등을 하는 국가 기관이다.

그동안 자동차 안전인증 국가 공인 기관은 경기 화성에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유일했다.

인증·평가 장비는 배터리 안전성 평가 장비 9종, 친환경 자동차와 배터리

등 고위험 부품의 충돌에 의한 폭발과 파손 등을 평가하는 충돌 안전성 평가 장비 7종, 충격 안전성 평가 장비 8종 등 모두 24종을 갖춘다.

시는 부품인증센터 유치로 최근 증가하는 소형 전기자동차의 충돌 부분에 대한 안전 인증을 빛그린 산단에서만 수행할 수 있어 산단 활성화와 친환경 자동차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인공지는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사업과 부품인증센터를 연계, 미래 자동차 기술 확보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김태수 기자

함평內 생태공원, 내년 2월까지 임시 휴원

함평자연·양서파충류 생태공원 2곳

전남 함평군은 함평자연생태공원과 양서파충류생태공원이 동절기를 맞아 임시 휴원한다고 2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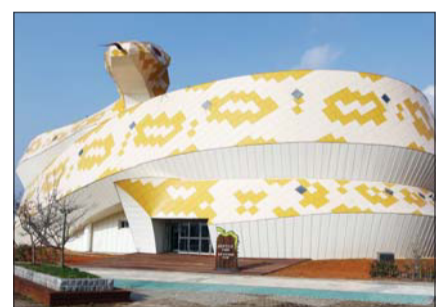
휴원 기간은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간이다. 지난 9월부터 통합 운영하고 있는 두 곳은 이번 휴원기간에 맞춰 수도시설 보온조치를 비롯한 월동준비에 들어간다.

또 각종 시설물 정비 사업도 함께 추진해 내년 3월 다시 개장할 계획이다.

지난 2006년 함평군 대동면 운교리 일원에 조성한 자연생태공원은 나비·곤충 표본전시관 등 7개의 전시시설과 반달가슴곰 관찰원 등 16개의 관람시설, 전망대, 벽천폭포 등 9개의 편의시설이 갖춰진 전국 대표 자연생태체험 학습장이다.

지난 2008년에는 환경부로부터 서식지 외 보전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풍란, 한란, 지네발란 같은 멸종 위기종을 개체 증식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지난 2014년 함평군 신광면 학동로 일원에 국내 최초로 문을 연 양서파충



양서파충류생태공원

/뉴스

류생태공원은 8만5000㎡의 부지에 연면적 2673㎡ 규모의 별관까지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양서파충류 전문 생태공원이다.

현재는 국내외의 70여 종, 190여 마리의 양서파충류를 전시하고 있으며 뱀감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상시 운영하고 있다.

함평군 관계자는 “관람객 감소에 따른 시설운영비 절감과 동면이 필요한 동물들 휴식차원에서 불가피하게 내년 1~2월 임시 휴원하게 됐다”며 “군 홈페이지와 주요 시가지 일대에 공원 휴원 관련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등 관광객들이 헛걸음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나성주 기자 nsj3983@

목포해수청

강진마량항 물양장 완공
(정비공사 2구간)

국가어항인 전남 강진 마량항 정비공사 2구간 물양장 104m가 완공됐다.

209억원이 투입된 마량항 정비공사는 2017년 5월 착공, 2022년 5월 완공 예정이다.

1구간은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50억원을 투입해 물양장 150m를 확장했다.

이번 2구간은 물양장 104m로 40억원을 들여 완공됐다.

마량항은 1971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돼 1984년 기본시설계획을 수립한 후 1994년까지 방파제 790m, 물양장 466m 등의 어업 활동에 필요한 기본시설을 완공했다.

그러나 최근 협소한 배후부지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 목포해수청은 2017년부터 마량항 정비공사를 추진해 오고 있다. 장귀표 목포해수청장은 “앞으로도 마량항이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미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비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조속한 완공을 위해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오늘의 날씨

12월 3일 (화)
음력 : 11월 7일

수도권 날씨
-4 ~ 5°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해돋이 / 07:29 | 해질 / 17:14

연천 -8/5, 동두천 -7/5, 가평 -8/4, 파주 -7/5, 서울 -4/5, 양평 -7/5, 인천 -3/6, 수원 -3/5, 용인 -3/5, 평택 -6/5, 백령도 3/7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LTE 기술, 철도에... SKT 인천지하철에 '전용 무선망'

SKT-인천시 'LTE-R' 구축 맞손 관제실·역무원 등 정보교류 수월 안전성 향상, 재난상황 신속 대응 내년까지 1·2호선 전체 설치 목표

SK텔레콤이 인천도시철도 철도통합 무선통신서비스(LTE-R) 구축 사업자로 선정됐다.

SK텔레콤은 지난 11월 29일 인천광역시와 인천도시철도 송도랜드마크시티역 LTE-R 구축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LTE-R이란 LTE 기술을 철도에 적용해 개발한 무선통신시스템이다. 음성, 영상, 데이터 등 대용량 정보를 빠르게 주고 받을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계약에 따라 양측은 인천1호선(연장 29.4km, 29개 정거장, 총 34편성)



SK텔레콤 직원이 지난 2017년 LTE-R을 구축한 김포도시철도에서 영상 통화를 시연하고 있다. /SKT

과 인천2호선(연장 29.1km, 27개 정거장, 총 37편성)에 구축 당시부터 사용해 오던 음성 위주의 통신시스템(VHF) 대신 LTE-R을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LTE-R을 적용하면, 대용량 정보를 빠르게 전송할 수 있다. 특히 실시간 영상 전송, 그룹통화, 문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관제실, 기관사, 역무원, 구조요

원 등이 동시에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어 지하철 운행 안전성·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측은 먼저 인천 1·2호선 전체를 아우르는 LTE-R 주제어장치(EPC)를 포함, 센터 시스템을 인천교통공사 중앙관제실에 구축할 예정이다. 또 국제업무지구(송도6역)~송도랜드마크시티역(송도7역) 본선 구간에는 LTE-R 송·수신 설비를 설치하고, 신설 정거장에는 LTE-R 관제 설비와 정거장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양측은 이번 사업을 내년 12월말까지 준공하는 것이 목표다.

SK텔레콤은 이번 사업 수주로 지금까지 LTE-R 구축을 추진해 온 부산, 김포, 서울, 인천도시철도의 메인 센터 관제 시스템을 모두 구축하게 됐다. 현재까지 LTE-R 구축을 추진한 모든 전국

지자체에 메인 센터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동사는 SK텔레콤이 유일하다.

SK텔레콤은 올해 ▲부전마산 복선전철 LTE-R 사업 ▲군장산단 입입철도 외 4개 사업 고밀도과장분할다중화장치 구매설치 사업 ▲서울7호선 석남연장선 LTE-R 사업을 수주해 구축 중이다. 최근에는 올해 최대 철도 통신망 사업인 '전라선 개량 및 군장산단 입입철도 등 4개 사업 LTE-R 구매설치 사업'의 우선 협상자로도 선정됐다.

SK텔레콤 최일규 B2B사업단장은 "지하철 재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려면 국가재난안전통신망과 연계되는 LTE-R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해 온 이동통신 기술력으로 LTE-R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책임자 처벌은 '빈칸'... 맹탕 대책에 비난

서울의료원 '태움' 대책 발표

노동시간 단축 등 5대 과제 내놔 시민단체 '뜨거름 잡기' 분통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워 괴롭힌다'는 뜻의 '태움'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 사건 이후 약 1년 만에 서울의료원이 감정노동보호위원회 신설과 간호사 지원 전담팀 설치를 골자로 하는 혁신 대책을 내놔다. 그러나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 사건 진상대책위원회와 시민대책위원회는 책임자 처벌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맹탕 대책'이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서울의료원은 2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노무 강화, 전담노무사 배치, 임금체계 개편 등 5대 혁신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5일 서울시 산하 서울의료원에서 근무하던 서지운 간호사가 태움으로 불리는 의료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시민사회에서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의료원은 이날 혁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의료원은 ▲직원이 행복한 일터 조성 ▲직원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일터 조성 ▲소통하는 일터를 위한 혁신적 조직·인사개편 ▲지속적인 공공의료 혁신 ▲고인 예우 추진 및 직원 심리치유 등 5대 혁신과제를 내놔다.

혁신안에 책임자 처벌이 빠졌다는 지적에 나뉘는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지난 9월 6일 진상대책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을 내놔다"며 "해당 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위 조사 결과에 징계안이 포함돼 발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진상대책위원회에서 병원 관계자들을 인터뷰한 자료가 있어 요청했는데 위원회가 진술자 보호 차원에서 이를 공유하지 않아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한 강경화 한림대 교수는 "인터뷰 자료를 제출하면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한 강경화 한림대 교수(왼쪽)와 양한웅 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가 2일 오전 서울시청 1층 로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서울의료원이 내놓은 혁신 대책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이분들이 제2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왜냐면 누가 말했는지 알면 항상 응징을 해온 게 병원 조직이다. 이 문제로 저희 핑계를 대면 안 되는 것이다. 진술자 보호 차원에서 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강경화 교수는 "개인정보가 없는 자료는 전부 제출했다. 서울의료원 진술자들 명단을 안 줘서 징계를 못한다는 말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유족이 상당히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시 조사과에서는 유족을 단 한번도 만나주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의료원은 우선 간호 인력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경력간호사 약 30명으로 구성된 '간호사 지원전담팀'을 운영한다. 전담팀은 선임 간호사의 업무 부담과 병가, 휴가 등에 따른 인력 공백을 메우고 신규간호사의 업무 적응을 지원한다.

평간호사 위주로 구성된 '근무표 개선위원회'도 신설한다. 이들은 병동·근무조·직종에 맞게 근무표를 개선한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온 60명 인력 증원은 내년까지 완료한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현재까지 44명이 들어왔고 내년엔 16명이 총원인데 그걸로 되겠냐"며 "퇴사 인력에 대한 총원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서울의료원 사직률은 37%에 달한다.

의료원은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시간 단축도 추진한다. 직무 분석을 통해 실근로시간과 직종 및 직무 등을 고려해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노사 협의를 거쳐 출퇴근 시간 확인 시스템을 도입한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계속 문제를 제기했고 마이너스 오프(인력부족으로 인한 휴일근무)로 주휴를 못 쉬어서 고용노동부에서 시정조치를 내렸다"며 "마이너스 오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정도인데 아무리 인력충원을 하면 뭐하나 사직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걸 마치 절벽을 보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의료원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표준매뉴얼을 개발하고 감정노동보호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한다. 심리, 정신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감정노동보호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접수부터 처리와 구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처리 결과를 공개한다.

이와 함께 의료원은 인사팀과 노사협력팀을 신설해 조직 개편을 한다.

진상대책위원회가 요구한 간호부원장제도가 혁신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부원장은 이사급이다. 이사수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현재 다 차있는 상태다. 이사를 한명 더 늘려달라고 법개정을 요구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지 당장 못 한다고 해서 아예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 적극 추진하겠다"고 해명했다.

/김현정 기자 hjk10

김장철 '불법 젓갈' 판매업소 무더기 적발

인천시 특사경 위생법 위반 30곳 등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김장철을 앞두고 영업신고 없이 젓갈류를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특사경은 젓갈류 등 김장철 성수식품 취급 식품제조·가공·판매업소와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등 82개소를 점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30개소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소 7개소를 적발하고 이중 35개소는 입건, 2개소는 관할 행정기관으로 이첩했다.

이번 단속은 김장철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수요가 많은 젓갈류 및 다진 마늘 등 김장철 성수식품과 조류독감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을 맞아 시민 대표 먹거리인 식용란(달걀)의 안전관리가 필요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은 식용란 수집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식용란을 대량으로 판매한 무신고 판매업소 3개소, 원료수불서류와 생산직업



김장철 젓갈류 판매업소 /인천시

일지 등을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알가공업체 2개소, 식용란 표시사항을 위반한 1개소, 식용란 수집판매업을 하면서 거래 폐기 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은 1개소로 총 7곳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젓갈류 등을 손님이 원하는 만큼 덜어서 판매하는 경우 관할 구청장에게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관리 기준을 지켜야함에도 적발업소 중 27개소는 항·포구 어시장에 난립한 무허가 건축물에서 영업신고 없이 비위생적으로 젓갈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j@

서울시 '우수 규제개혁 아이디어' 13건 선정

최우수상 '전동킥보드 활성화'

서울시는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시민과 함께 발굴하기 위해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고 우수과제 13건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시민이 찾아낸 65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10건 등 총 13건의 우수과제를 뽑았다.

최우수상을 받은 과제는 '퍼스널 모빌리티(PM) 활성화를 위한 전동 킥보드 규제 개혁'이다. 제안자는 전동킥보드 운행 가능 구역을 자전거 도로 등으로 확대하고 별도 면허와 최고 속도 등 안전 기준을 신설하자고 건의했다. 현

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전기 자전거와 달리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있어 차도에서만 주행할 수 있고 원동기 면허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동킥보드의 활성화와 안전운행 모두에 기여할 수 있는 제안이다"고 평가했다.

'다자녀 가정 전용 카드의 발급·혜택 통합' 아이디어는 우수상을 받았다. 광역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하는 다자녀 가정 카드의 발급 기준과 시스템을 통일·연계하자는 내용이다. 이 경우 다른 지자체 전입 시 카드가 자동 재발급되고 카드 혜택이 공유되는 장점이 있다. 시는 수상자 13명에게 서울시장상과 상금을 주고 우수 아이디어가 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금융] 하나금융그룹 “3대 경영원칙으로 모두의 가치창출 실현” 05



Life

[산업] 한화사 장남 김동관 전무 부사장 승진 06



엄마 마음으로 ‘솔솔’... 스포츠 꿈나무에 ‘희망의 새살’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동국제약

50년째 국민 상처치료를 책임지는 ‘마데카솔’은 수익금 대부분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쓰고 있어 주목을 받는다. 동국제약은 마데카솔의 수익금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펼치면서 축구와, 야구 꿈나무 육성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아이 상처를 치료하는 엄마의 마음으로 스포츠 꿈나무를 키우는 마음이다.

동국제약 마데카솔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상처치료제 브랜드로, ‘마데카솔케어연고’ ‘복합마데카솔연고’ ‘마데카솔분말’ ‘마데카솔연고’ ‘마데카솔윤벤드’ 등 시리즈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스포츠 꿈나무 키운다

동국제약은 대표적으로 한국유소년축구연맹과, 한국리틀야구연맹을 통해 유소년 선수들을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활동들을 후원해, 장기적으로 한국 스포츠의 기초를 강화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한국유소년축구연맹과 ‘유소년 상비군(대표팀) 후원 협약’을 체결하고, 유소년 대표팀의 유니폼 제작 등에 필요한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공식 후원사로 나서고 있다. 이 협약으로 우리 유소년축구 대표팀은 ‘마데카솔’ 로고가 새겨진 유니폼을 착용하고 각종 국제 대회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다.

한국유소년축구연맹은 한국축구협회의 산하 기관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유소년 축구대회인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축구대회’와 ‘경주국제축구대회’를 개최하는 등 유소년 선수들을 육성하고 축구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동국제약은 2012년부터 매년 어린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대회에 참가하는 팀들에게 마데카솔연고와 총 20여종의 구급용품이 담겨진 구급함을 지원해 오고 있다.

올해부터는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축구대회’에 축구 꿈나무들을 위한 ‘마데카솔 클린상’을 후원하고, 9개 팀을 시상하고 있다. 이번에 신설된 ‘마데카솔 클린상’은 공정하게 경기에 임하고,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스포츠맨십을 심어주는 취지로 제정되었으며, 본선 토너먼트 진출팀 중 입상자를 제외하고, 경고(옐로카드)를 가장 적게 받은 9개 팀을 선정해 트로피와 부상(스포츠용품)을 수여했다.

또 2011년부터 한국리틀야구연맹을 통해, 매년 국제 친선 교류전을 갖는 리틀야구 대표팀을 후원하고 있다. 올해 2월에도 ‘한·미 친선 교류전’을 치르기 위해 미국으로 떠났던 리틀야구 대표팀에게 현지에서 사용할 야구용품과 구급함을 전달했다.



동국제약 직원들이 지난 7월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산행 안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동국제약은 리틀야구 국가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며 마데카솔연고 등 구급용품 20여 종이 담긴 구급함과 야구용품 등을 전달했다.



서호영 동국제약 상무(오른쪽)와 김영균 한국유소년축구연맹 회장이 후원협약식용 기념촬영 하고 있다. /동국제약

마데카솔 수익금 일부 사회 환원 스포츠 꿈나무 육성 적극 동참

유소년 축구대표팀 유니폼 지원 리틀야구대표팀 용품·구급함 전달

국립공원에서 안전한 산행 독려 캠페인 소아암 어린이와 봄 나들이 행사도



동국제약 서호영(오른쪽 두 번째) 상무가 녹색어머니중앙회 천경숙(왼쪽 세 번째) 회장, 양측 관계자들과 후원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리틀야구연맹은 한국 야구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취지 아래 크고 작은 리틀야구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우리 리틀야구 대표팀은 그에 힘입어 세계리틀리그 월드컵 시리즈에 진출해 2014년과, 2015년 우승에 이어 2016년 인터내셔널 그룹 우승의 쾌거를 거두었다. 동국제약은 2016년에 한국리틀야구연맹에서 주관하는 ‘세계리틀리그 아시아-태평양&중동지역 대회(APT)’를 후원한 바 있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대표적인 상처치료제 마데카솔이 미래의 국가대표가 될 유소년 대표팀 선수들을 후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올해도 어린 선수들이 부상 없이 최고의 기량을 펼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건강한 산행을 돕는다 동국제약의 마데카솔 수익금은 ‘국립공원 산행안전 캠페인’ ‘우리아이 안전 캠페인’ ‘소아암 어린이 봄나들이 후원’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 ‘국립공원 산행안전 캠페인’은 2009년부터 동국제약과 국립공원공단이 체결한 ‘안전한 산악문화 정착을 위한 협약’에 따라, 매년 봄·가을에 전국 주요 국립공원에서 등산객들의 안전한 산행을 독려하는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은 국가

기관과 민간 기업체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공익 캠페인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는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과 협약을 맺고 매년 ‘소아암 어린이 봄소풍’을 행사에 경비 전액을 후원하고 있는데, 서울, 부산, 대구, 전남 등 4개 지역별로 나눠 각각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서울지역 행사에는 동국제약 직원들이 자원봉사자로 동참해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들의 봄 나들이를 돕고 있다.

또 2012년부터 매년 ‘우리아이 안전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야외활동 시간편하게 지참할 수 있는 파우치 형태의 휴대용 구급가방을 전국의 보육시설 1000곳과 녹색어머니중앙회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구급가방에는 마데카솔연고를 비롯해 밴드, 거즈, 반창고 등 구급용품이 구비되어 있어, 실내에서 뿐만 아니라 소풍, 현장학습 등 야외활동 시에도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어 유용하다.

동국제약 이처럼 동국제약은 크고 작은 사회공헌활동 통해 착한 브랜드, 착한 기업으로서 고객들에게 다가서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